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柳 浚 景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초등학교 漢字教育의 實態와
효과적인 漢字教育方法 연구

2010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漢文教育專攻
金 美 英

초등학교 漢字教育의 實態와
효과적인 漢字教育方法 연구

柳 浚 景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漢文教育專攻

金 美 英

認 准 書

金美英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국문초록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자교육은 이전의 비공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공식교육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과는 달리 인정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도 교육감 인정교과서는 54종 이상이며, 2000년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인정교과서만 49종 212책으로 전체 인정교과서의 19.8%를 차지한다.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가 발행될 정도로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인정교과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인정교과서를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인정교과서의 문제점인 인정교과서의 어원이 다르게 실려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정교과서에 실린 내용들 가운데에서 어원에 대한 설들을 분류·분석하였다. 인정교과서에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된 어원만을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익혀야 할 한자 가운데 10자 정도를 선정하여, 거기에 따른 어원을 <설문해자>와 <갑골문>을 토대로 비교를 하고, 어원을 통한 수업지도안을 계획해보았다.

본고는 현재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한자는 무조건 쓰고, 암기해야만 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한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에 자원, 부수, 육서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보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자교육의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論	4
1. 研究의 目的	4
2. 연구사 및 연구의 방향	7
II. 初等 漢字教育의 필요성과 方向	12
1.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	12
2.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방향	18
III. 初等學校 漢字 教育의 現況 및 問題點	22
1. 初等學校 漢字 教育의 狀況	22
2. 初等學校 漢字 教育의 問題點	28
IV. 효과적인 教育方法 摸索	32
1. 初等學校 漢字教育의 方法	32
1) 교육과정해설서의 한자교육 방법	32
2) 일반적인 한자교육 방법	35
2. 효과적인 한자교육 방법	37
1) 자원을 활용한 방법 : 교수-학습 지도안	37
2) 부수를 활용한 방법 : 교수-학습 지도안	48
3) 육서를 활용한 방법 : 교수-학습지도안	53
V. 結論	70

參 考 文 獻

ABSTRACT

부 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자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한자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한자교육실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은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2009년에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을 명시하였다.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한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한 것이다.¹⁾ 6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자교육 관련 '교과서'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한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으로 명시화 하였다는 점은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제도권 교육에서까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수업에서 한자교육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중학교의 한문교육과

1) 교육과학기술부(2009), 책제목 빠졌음 5면, 21면. 참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0 항목 중 2개 6항을 보면,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초등학교 교육에서 한자교육을 '교과'학습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학습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은 한문 과목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한문 과목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 학습을 통하여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²⁾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현장에서 한자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 '교과'를 통해 교수·학습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새롭게 편성된 것으로 기존의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을 통합하고 계승한 측면이 있다.³⁾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재량활동이나 방과 후 학교를 통한 한자교육을 하는데, 현재 초등학교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도 교육감 인정 교과서는 54종 이상이며, 2000년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인정교과서만 49종 212책으로 전체 초등학교 인정 도서의 19.8%를 차지한다.⁴⁾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전남, 대구, 경남, 부산 등의 8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가 발행될 정도로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인정교과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인정 교과를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는 각 시·도의 교육감이 일정한 심의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만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 교과서에 따라 집필자의 집필 의도 등이 반영되어 학습 내용 중심,

2) 교육과학기술부(2008),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p.155

3) 한은수(2010), 「창의적 체험활동과 초등학교 한자교육 운영 방안」,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4) 김진숙, 장호성, 남가영, 심영택, 이군선(2009), 책제목, 출판사 빠졌음 pp.10~11

학생 활동 중심 등의 특색이 있지만 한자, 한자어, 한자 성어 등의 학습에 대한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 효과적인 교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정교과서의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자의 어원을 들 수 있다. 한자의 어원이 인정교과서 마다 상당히 다르게 실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어원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근거가 없는 어원으로 이후 중등학교 한문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인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한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보다 나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인 한자교육 방법의 모색에 앞서 한자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점검이 우선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어 현실의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인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아울러 거론될 것이다. 이어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사실 한자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인 필요하다. 한자교육은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지루해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한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부수와 육서, 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한 효과적인 한자교육 방법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및 연구의 방향

초등학교 한자교과서의 인정 현황은 해가 거듭 될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인정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초등학교 인정교과서에 대한 분석, 한자를 가르치는 방법 중에는 자원, 부수, 형성자의 성부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 교재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한은수를 통해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현행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 내용 분석이란 논문을 통해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의 인정 현황과 인정교과서의 내용 분석과 함께 인정교과서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⁵⁾ 진철용의 초등학교 한자 교재의 구성과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한자 교재의 종류와 구성, 교재 활용 현황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⁶⁾ 지재환은 한자교재 분석을 통한 초등한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교학사와 재능교육,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나온 초등한자 인정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초등기초 한자의 성정과 한자쓰기 필순에 관한 분석과 대표훈에 관한 고찰을 살펴보고 있다.⁷⁾ 강민석의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 연구에서는 한자교과서의 인정 양상과 급수시험 대비형, 어휘력 향상형, 창의력 신장형, 가치관 형성형을 통해 한자교과서의 유형별 편찬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유형별 특징을 동기 유발형, 어휘력 향상형, 흥미 유발형, 가치관 형성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⁸⁾

5) 한은수(2009), 「현행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 내용 분석」, 『한자한문교육』 제 23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6) 진철용(2009), 「초등학교 한자 교재의 구성과 활용 현황」, 『한문교육연구』 제 32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7) 지재환(2003), 「초등 한자교재 분석을 통한 초등한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자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으로는 김은정의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의 효율적인 학습 방안 연구에서 부수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다.

9)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는 원재필의 한자 부수와 성부를 활용한 한자이해력 신장 방안이 있다.¹⁰⁾

한자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것 중 자원을 활용한 방법의 논문으로는 송영일의 자원 한자 교수 · 학습 연구에 대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손 관련 한자를 중심으로 자원을 설명하고 있다. ¹¹⁾ 한은수는 자원을 활용한 한자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논문으로, 초등학교 한자 교재의 자원 제시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¹²⁾ 또, 이은주는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육방안 연구에서 부수중심 식자법에서의 자원 활용을 제시하고, 부수에 속한 한자 자원 분석을 연구하였다. ¹³⁾ 김창호는 한자교육에 있어서의 자원의 문제에 대해 김인정 한자 교과서의 자원 설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¹⁴⁾ 이충구는 설문해자에 나타난 한자자원 연구를 하였다. ¹⁵⁾

이경숙의 형성자의 성부를 이용한 한자교육에서의 응용에서는 형성자의 의부와 성부, 형성자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¹⁶⁾ 이병찬은 교육용 기

8) 강민석(2008)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은정(200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10) 원재필(2010), 「한자의 부수와 성부를 활용한 한자이해력 신장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11) 송영일(2006), 「자원 한자 교수 · 학습 연구 : '손' 관련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 1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2) 한은수(2006), 「자원을 활용한 한자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 초등학교 한자 교재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 1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3) 이은주(2006),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육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국어교육전공

14) 김창호(2005), 「한자교육에 있어서의 자원의 문제 : 김인정 한자 교과서의 자원 설명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 1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5) 이충구(2006), 「설문해자에 나타난 한자자원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 1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초한자 중 형성자의 음가 변화 연구에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형성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교육용 기초한자 형성자 분류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17) 또한, 한자교육상의 형성자의 문제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18) 형성자 연구는 진태하의 형성자 연구 : 한자를 표음문자처럼 읽는 방법에서도 형성자의 종류와 구조, 형성자의 표의성, 성부의 이음화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 이영수는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수 및 성부 활용 연구를 통해 한자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 정연실과 장은영은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수자 중심 한자교육을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외국어과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표를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21)

위와 같이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원, 부수, 성부, 육서를 통한 한자 학습법과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들은 지도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는 데 그쳤지만, 본 논고에서는 교수-학습지도안을 통해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검정교과서의 잘못된 어원을 지적하여, <설문해자>와 <갑골문>을 통해 어원을 살펴보았다.

위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드러나듯이 초기의 연구에는 초등학교 한자교육

-
- 16) 이경숙(2004), 「형성자의 성부를 이용한 한자교육에서의 응용」, 『한문학보 제 10집』, 우리한문학회
 17) 이병찬(2006), 「교육용 기초한자 중 형성자의 음가 변화 연구」, 『한문교육연구』 27권, 한국한문교육학회
 18) 이병찬(2003), 「한자교육상의 형성자문제」, 『한문학논집』 21권, 근역한문학회
 19) 진태하(2003), 「형성자 연구」, 『새국어교육 통권65호』 동권6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 이영수(2004),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수 및 성부 활용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 1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1) 정연실 · 장은영(2009),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수자 중심 한자교육 :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외국어과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표를 대상으로」, 『중국학연구』 제47집, 중국학연구회

의 필요성과 한자교육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논문들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는 그 동안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증명하는 것들이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초등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자는 단순히 중국에서 탄생한 글자로서의 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 천 년간 우리가 문자언어로서 향유하였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과 문화를 이룩한 우리의 문자문화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한자라고 할 것이다. 문화적 존재인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한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자교육의 현황을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한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하였다. 사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치르는 학생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현재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위의 첫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한자는 무조건 쓰고, 암기해야만 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한자를 교육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자원, 부수, 육서, 형성자의 성부를 활용한 방법을 초등학교 범위 내의 한자 600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자원을 활용한 방법은 인정교과서 3종류를 선정하여 한자의 어원을 살펴본다. 어원이 불분명하거나 흥미 위주의 어원이 기술되었거나 하는 등 각 교과서 마다 차이점이 있었다. 필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익혀야 할 한자 가운데 10자 정도를 선정하여, 거기에 따른 어원을 <설문해자>와 <갑골문>을 토대로 비교를 하고, 어원을 통한 수업지도안을 계획해본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현행 인정교과서 몇 가지를 선택해 자원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부분과 오류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한자교육의 나아갈 점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셋째,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수정된 교수-학습지도안을 만들어,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한자 학습을 방법을 제시하여 올바른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1.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

필요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한자교육의 이념부터 살펴보겠다.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밥을 먹고, 김치를 먹는 것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나의 주체적인 판단이전에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때에는 말의 필요성, 밥의 필요성, 김치의 필요성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 이전에 이미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체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성'이 주장되지 않는다. 필요성이 주장되기 전에, 그냥 그렇게 구성되기 때문이다.²²⁾

주체의 선택 이전에 이미 주어져 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언어 문화이다.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한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것을 성찰하고, 나아가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한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실의 언어이다. 이때 한자는 단순히 중국에서 탄생한 글자로서의 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 천 년간 우리가 문자언어로서 향유하였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과 문화를 이룩한 우리의 문자문화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한자라고 할 것이다. 문화적 존재인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한자이기 때문이다. 한자교육은 어떤

22) 류준경(2008), 「한문교육의 이념과 대학원의 역할」, 『한문교육연구』 제30호, p.99

이익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며, '지금''여기'의 '나'가 '지금''여기'의 '나'이기 위해서 교육되어야만 하는 것이다.²³⁾

언어 속에는 한국 고유의 한자로 표기가 불가능한 고유어 뿐 아니라, 한자로만 풀이를 하여야만 그 어휘의 의미가 이해되고 확장되는 한자어가 함께 존재한다. 초등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한국어 속의 어휘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형태적으로 볼 때 어떤 한국 어휘라도 한글로 표기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음가만을 표시하는 한글로는 대강의 어휘 의미 파악은 가능할 지라도 실제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어휘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 어휘력의 증진과 신장이라는 교육적인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한자를 통한 어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²⁴⁾ 이렇게 필요 이전에 이미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음은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을 대부분 한자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 창제 이후 우리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말과 글 속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가 섞여 쓰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국어사전에 나타난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의 비율을 보면 국어사전 어휘의 약 65%가 한자어이다. 이렇게 볼 때, 한자교육은 우리 언어 · 국어 · 문화 ·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국어 어휘에서 한자어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경우 한자

23) 류준경(2008), 「한문교육의 이념과 대학원의 역할」, 『한문교육연구』 제30호, p.100

24) 허철(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위한 기초어휘·기초한자 선정의 방법 검토」,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1

의 조어력이 순수 우리말의 조어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한 우리말로 단어를 만든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많다. 아무리 우리말로 어감이 좋고 뜻이 쉽게 파악된다고 해도 한자로 몇 개의 음절이면 충분한 것을 무조건 길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겨날 단어 가운데 극히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어도 한자어가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한자를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한자를 익혀야 하는지 자명해졌다.²⁵⁾

그렇다면 왜 초등학교 때, 한자를 교육해야하는 것일까?

한자 학습시기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하는 이유는 첫째, 초등학교 학습과정에서 그들이 접하는 어휘가 모두 순수 고유어가 아니라 상당수의 단어가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한자어를 한자로 이해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식 습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사정은 초등학교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사회 시간에 배우는 "등고선(等高線)"도 한자어로 익히면,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은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현재의 교육 체제상으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한자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국어 어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란 것이 사실상 순수한 고유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인다면, 중학교 1학년부턴 한자 공부는 시키는 것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한자 학습 시기를 초등학교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 수준의 한자교육과정 또한 필요하다. ²⁶⁾

25) 박정규(2009),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제언」, 『사학과 언어학』 제 17호, p.97

26) 박정규(2009),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제언」, 『사학과 언어학』 제

둘째,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의 한자교육 여건을 보면, 언어생활 중심의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끝난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언어생활의 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한문 문장 학습 이전 단계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은 초등 한자교육과 성격과 목표가 다르다. 그리고 현재의 중등의 여건은 언어생활 및 교과학습 차원에서 요구되는 한자어 교육의 주체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대학 입학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인증시험이 있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들이 한자 능력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학습이 처음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때 형성된 인식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한자 학습 방법은 향후 한자 지식과 관련한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평생 계속교육 차원에서 기본적인 한자 학습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근래의 언어 현상의 하나로 한자의 말글화를 들 수 있다. 어떤 학자는 말글화를 한 한자를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한글로 표기된 '학교'의 '학'이 배움과 관련된 뜻이라는 것을 통해 새로 접하게 될 '학습'이라는 어휘도 배움과 관련된 뜻이라는 것을 쉽게 안다는 것이다. 한자교육을 통해 기초 한자와 한자어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등 이후 언어생활 중심의 한자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익히는 한자 지식과 학습 방법은 이후 한자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서 해결력을 갖추게 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기초 학습 방법의 학습은 평생 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한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字形에서 느껴지는 圖形的 이미지, 구성 한자의 뜻을 합해 짚어내는 의미 파악의 즐거움은 초기 학습에서 충분히 흥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같은 정서적 편안함 속에서 한자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에서, 한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태에서 한자 지식의 효용성을 알고 적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²⁷⁾

셋째,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교육에 기초다.

한자는 근대 이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통용되는 보편문자다. 지금도 각국마다 언어생활의 기반을 이루면서 문자 사용상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자형성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한다. 중국은 60년 대 簡化字의 보급이 이루어진 이래 정착 단계에 있고, 일본은 일부 略字가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簡化의 원리가 대부분 원 글자의 자형 특성에 근거하고 있고, 일본의 약자도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사용 실체에 있어서도 正體字 본위로 배운 학생들이 간화자 사용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일본의 약자도 원 글자의 형태로부터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 밖에도 활용 어휘의 공통적인 기반을 들 수 있다. 보편문어로서의 한문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한자는 자체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의 학술과 문화가 동아시아에 유입될 무렵, 상응하는 개념을 담은 번역어가 한자 자체의 의미와 조어 방식을 통해 새로이 탄생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휘도 많지만, 대부분 먼저 문호를 개방한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후 한자사용권 국가 사이에서 공유돼 왔다. 한자어의 개념과 형성 원리, 공유 기반을 고려할 때 한자교육은

27) 김창호(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성격과 지향」,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82

한자사용권 국가 언어의 학습을 위한 기초 학습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8)

언어는 모방과 학습을 통하여 터득되는 것이며, 어문 교육의 핵심은 학습과 반복 훈련을 통하여 표현력과 이해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고도한 전달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문·문자학습이 제일 경이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학습 효과의 능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시절이다. 유아를 '노는 어린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어린이는 '학습하는 어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유아는 언어발달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보통 3세에는 2세 때 어휘력의 3배가 되고, 5세에는 3세 때의 2배로 증가된다. 2세 때에는 신체적 필요를 나타내는 몇 가지의 극히 단순한 말을 겨우 하지만, 3세 경에는 자기의 의사·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에는 문자력, 3~4학년 시에는 발표력과 문법능력, 고학년 시에는 독해력 등이 발달하게 된다. 특히, 수에 대한 개념의 발달은 느린 편이며, 추상적인 사고는 11세가 넘어야만 뚜렷하게 적용하며 이때부터 비판력과 문제해결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창조적인 사고가 풍부하게 되는 것이다.²⁹⁾ 이런 언어 교육의 발달 단계를 감안할 때 초등학교 때 한자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지금까지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요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의 말과 글이니까 배워야 하며, 초등학교 시기는 평생교육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학습해야 한다. 한자교육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동아시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한자의 조어력은 우리말의 조어력보다 크기 때문에 언어생활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28) 김창호(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성격과 지향」,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83

29) 김정휘·주영숙 공저(1982), 『교육심리학탐구』, 형성출판사, pp.95~100

2.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방향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성격은 한자·한자어를 익혀 우리말의 70%가 넘는 한자 어휘를 이해하여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며, 선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이해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인식하고, 국가 수준의 초등학교 한자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체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 이쯤에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한자교육'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한자교육'에 대한 방향과 성격의 설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2009년 교육과정의 총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념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정의와 '한자교육'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학습 과목의 범주를 아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한자교육을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자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6차 교육과정에서 당시에 '교과 재량활동'의 '한자'에 대해 교재는 준비되었으나, 이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당시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이었다. 물론 재량활동을 통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활용하기는 했으나,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는데는 미흡하였다.³⁰⁾

지금까지 위에서 본 바처럼 재량활동의 한자교육은 창의적인 자기주도적

30) 송병렬(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 방향 정립과 현행 방안」,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학습이어야 한다. 이것은 예전처럼, 단순 암기식으로 혼과 음을 외우고, 무조건 쓰기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이 한자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방식의 어원을 알려주고, 어원을 통해 공부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으며, 교사 또한 어원에 근거하여 창의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길러 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형성자의 성부를 통해 가르치는 방법이다.

한자교육은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교육되어야 한다. 사교육 시장을 살펴보면, 전공이 아닌 경우에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장원이나 구몬이나 눈높이, 웅진 썩크 빅, 재능 등의 학습지로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아무리 사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한자는 전문가에 의해 교육되어야만 한다. 비전문가의 경우, 한자의 어원에 대해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에 대한 지식도 없기 마련이다. 이처럼 사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공교육에서의 전문가를 통한 한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습지를 만드는 회사도 교재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반드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맞게 학습지 내용을 실어야 하며, 체계적인 교재 연구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다음은 현행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재량한자 시간을 살펴보자.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인정교과서인 『명품한자』를 초등학교에 보급하여 재량활동 시간에 주 1회에 걸쳐 한자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시간은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것이며, 한자교육이 공교육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 때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량활동 시간 뿐 만 아니라, 현재 사교육의 대안으로 방과 후 학교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방과 후 한자부를 교육하는 선생님 또한 반드시 전문가여야 한다. 초등학교

한자는 쉬우니까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선입견은 버리고, 전문가가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3년 뒤인 1995년에 초등학교 학교재량시간 및 중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여기에 초등학교 한자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과정은 초등학교 한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격과 목표의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성격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 600자를 바탕으로 한자·한자어·한자어구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게 하여, 한자어로 이루어진 국어의 기본어휘의 이해력을 높여서 바람직한 국어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2. 목표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를 바탕으로 한자·한자어·한자 어구를 익혀, 언어 생활에서 바르게 읽고 쓰며, 한자어로 된 생활 한자어의 개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초보적인 기능을 기르게 한다. 31)

국가에서 제시한 검정 교과서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위한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집필자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인정교과서라 하더라도, 위의 성격과 목표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부분은 2008년까지의 인정교과서를 제시하였는데, 이 외에도 2009년과 2010년에 수 많은 인정교과서들이 출판되어 나오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이나 아침 자습 시간에 활용되는 부분은 충분히 학교 수업 시간 내에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해

31) 서울특별시 교육청(1997), 『초등학교 학교재량시간 및 중학교 선택과목 관련 교육과정』

야한다. 지금의 심의기준은 교과적 특수성보다는 일반적 심의 기준에 머무르고 있을 따름이다. 설령 교과 기준을 반영하여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교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2)앞으로는 형식적 요건만 갖춘 인정 심의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충실함을 갖는 인정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필자들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양질의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3)교과서의 출원을 받아 심의를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교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지만, 더욱더 세심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관계자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
- 32)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인정교과서의 1차 심사기준은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구분한다. 공통기준은 국가정책, 교육 내용의 적합성 여부와 집필상의 공정성으로 심사되는데, 구치적으로 국가체제를 부정한 내용이 있는가? 특정 정당, 종교, 지역에 대한 선전, 우대, 왜곡 등의 내용이 있는가? 각종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가? 교육법,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적 및 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교과서 내용 구성에 있어 현저하게 표절 또는 조작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독자적인 창작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가?, 학문상 오류나 정설화되지 아니한 저자의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 기준은 교과 특성에 따라 필요 사항을 평가하는데 교육과정과의 균형성, 이론적 배경, 학습 목표와 내용의 관련성, 학습 분량의 적정성, 학습 수준의 적정성, 학습 내용의 시의성, 학습의 자율성, 타 교과와의 연계성, 구성 체제의 적정성, 표현 표기의 적정성 등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교과서업무처리 지침(2005)
- 33) 김어진(2010), 「초등학교 한문교육 현황과 모형 모색」,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문교육전공, p.44

Ⅲ.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교육은 현재까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다. 공식적인 교육은 학교라는 기관에서 재량활동과 방과 후 학교의 교과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한편, 비공식적인 교육의 목적은 대개 한자능력급수시험과 같은 자격증 취득이나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학습욕구에 의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한자 자격증 취득이라는 기대 이외에도 학부모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동양고전에 대한 교육, 한자교육을 통한 어휘력의 신장, 한국의 어문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자는 우리말이기에 알아야 한다는 등 그 교육의 지향점이 다양하여 일반화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요구는 초등학교 한자교재에 분명하게 드러난다.³⁴⁾

현재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를 살펴보면, 교육감 인정의 한자 교과서가 50여종인데, 각기 다른 근거 없는 어원들을 설명하고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다. 초등학교 때, 잘못된 어원을 배워서 성인이 되면 평생 잘못된 어원으로 한자를 기억하기 쉽다. 따라서, 한자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시절 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어원들을 인정교과서에 제시하면서 올바르게 한자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 교육과정의 변화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

34) 허철(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위한 기초어휘·기초한자 선정의 방법 검토」,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하게 되었다. 한자교육은 부족하나마 이전의 비공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공식교육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목표 설정과 방법, 내용체계를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며, 교재 검토 또한 이루어져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는 600자만을 제시하고, 그 편성 및 운영은 교재 집필자나 출판사에 일임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침자습시간, 재량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방과후학교 시간의 4가지 종류이다. 그런데, 아침자습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에 한자를 지도하는 것은, 특별 활동 또는 방과 후 학교 시간에 한자를 지도하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르다. 아침자습시간에 학교 전체가 한자를 지도한다거나, 재량활동시간에 어느 학년이 한자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개인의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방과 후 학교는 외부강사가 지도하는 것으로서, 정규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³⁵⁾

진철용의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과 전망」논문에서 보면, 설문기간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팩스, 메일, 인터넷을 통해 설문이 실시되었는데, 설문에 응답한 학교는 전국 122개이고, 학부모는 서울시내 5개 학교의 350명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한자교육 현황을 살펴본

35) 2008. 03.21. 법률 <제 8912호>됨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2009. 09.11), 실시 학년 - 5,6학년, 실시 시간 -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초등학교 보건교육에 사용될 교과서는 인정교과서로 운영(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2008)31면, 서울특별시교육청(2008)59면에서 발췌)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 차원의 전반적인 한자교육 현황은 학교교육과정상 한자교육의 편성 여부와 관련없이 한자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학교 58.2%가 한자교육을 전학년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에 한자교육을 편성하고 있는 비율보다 18%높은 비율인데, 이 점을 보면 학교교육과정에 한자교육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침자습 등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차원에서 전학년에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한자 관련 대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44.3%이며, 많은 초등학교에서 한자 경시대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55.8%가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하고 있었다. 한자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로는 교육청 인정교과서를 35.7%가량 사용하고 있었고, 24.1%정도는 학교에서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재량수업 시간에 『명품한자』 교재로 한자를 가르치게 했다. 종로구도 이번 학기부터 강남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재로 초등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시키고 있다.³⁶⁾

특별활동시간에 한자 또는 한문 관련 부서를 운영하는 학교는 36.9%,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61.5%로 많은 학교에서 계발활동시간에는 한자 또는 한문 관련 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³⁷⁾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시대적으로 한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하는 특별활동시간에는 한자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자는 흥미있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이 논문에

36) 아시아투데이, 2010.05.10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43155>

37) 진철용(2009),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자한문교육』 2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32~34

는 한자는 쉽고, 흥미있는 과목이 들도록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한다.

그럼, 한자교육의 사교육 시장을 살펴보겠다.

학습지 회원수 90만명 연 매출액 3000억원 시장에 거의 해마다 15%씩 성장. 1300만권이 팔린 학습서, 책이 나올 때마다 단숨에 베스트셀러... 한자 사교육 시장의 현황이다. 한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느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응시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자시험 복수 응시 인원을 제외한 2007~2009년 한자시험에 응시한 초등학생은 모두 240만명. 연 평균 80만 명이 한자 시험에 응시한다. 이는 지난 3년간 전체 초등학생 10명중 7명(69%)이 한자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셈이고 매년 4명 중 1명(24%)이 응시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사교육에만 맡겨진 한자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지는 오래 됐다.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도 초등학생 한자교육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11월 교육과정평가원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학부모의 89.1%, 교사의 77.3%가 초등학생 한자교육에 찬성했다.³⁸⁾ 보도에서 본 것처럼 한자교육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또한 한자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이기도 하다. 사교육에서의 한자학습지는 웅진 썬크 빅, 재능 교육, 대교 눈높이, 구몬 교육, 장원 한자 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강의도 많이 듣는다. EBS(ebs.co.kr), 한자통(hanjatong.co.kr), 한자마루(hanjamaru.com), 에듀나인(edu9.co.kr), 아이넷스쿨(inet-school.co.kr), 한자하우스(.hanjahouse.co.kr), 등 여러 가지 사이트에

38) 뉴데일리 경제 2010.02.24, <http://newdaily.co.kr/html/article/2010/02/24/ARTnhn41199.html>

서 한자 학습이 가능하다. 대부분 동영상 강좌에서는 한자능력급수시험에 대한 강의들을 주로하고 있고, 한문을 전공한 전공자가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초등학생용 한자교육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³⁹⁾

▲야후 꾸러기 에듀모아(edumoa.kids.yahoo.co.kr):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기초 한자를 익힐 수 있으며, 1~6학년까지 학년별로 꼭 필요한 한자를 학습지 형태로도 제공한다. 필수 한자를 모아 놓은 자료와 한글 문서 형태로 된 학년별 쓰기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다음 키즈짱 한자 놀이(kids.daum.net): 한자송, 한자 퀴즈,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 형태로 한자 학습을 안내한다. 알맞은 훈과 음을 지닌 두더지를 골라 마우스(망치)로 맞추면 점수를 얻는 두더지 게임 등 재미난 한자 게임이 많다.

▲엠키즈 차일드한자(study.kids.empas.com): 기초 한자를 획순에 맞춰 마우스로 쓸 수 있고, 관련 단어와 고사 성어도 함께 익힐 수 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로 한자의 획순을 순서대로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한자(www.ihanja.com): 마우스로 써 볼 수 있는 '오늘의 한자'를 제공한다. 급수별 한자 학습을 한 뒤 사격, 스피드, 급수별 게임 등으로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다. 한자 자격 시험을 대비해 예상 문제도 풀어볼 수 있다.

39) 소년한국일보 2008.05.26,
<http://kids.hankooki.com/lpage/world/200805/kd2008052614030599160.htm>

▲펀투펀(www.fun2fun.co.kr): 귀여운 캐릭터 게임으로 한자를 배울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한다. 한자의 훈음을 익힐 수 있는 '뿌셔뿌셔', 한자의 뜻 풀이를 공부할 수 있는 '방울방울', 한자 유의어를 안내하는 '점프점프' 등 한자의 특징을 잘 살린 게임이 돋보인다.

▲열린 한문 교실(www.openhanmoon.pe.kr): 한자를 만든 원리와 쓰는 순서를 익힐 수 있고, 한자 부수는 노래로도 배울 수 있다. 기초 한자에서부터 고사 성어까지 쓰기 자료도 제공한다.

▲한국 한문 한자 능력 개발원(www.hanja4u.org): 공부방 코너에서는 어린이용 한자 300 자를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며, 급수별 한자 모의 시험도 볼 수 있다. 텍스트 형식의 '한문 한자 강좌'와 '읽어 주는 사자 소학'도 알차다. 40)

지금까지는 한자교육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황을 살펴봤다. 현재 공교육인 초등학교에서는 한자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침자습시간, 재량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방과후학교 시간이다. 과거에는 주로 아침자습시간에 한자를 했다면 지금은 특별활동시간이나 방과후학교 시간에 한자교육을 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시간 중의 하나인 재량활동 시간에도 한자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사교육의 측면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지 시장에서도 해마다 15%나 성장하였으며, 매년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응시생도 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40) 소년한국일보 2008.05.26 (월) 오후 2:06 <http://kids.hankooki.com/lpage/world/200805>

2.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정교과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008년에 발표된 2002년 이후의 초등학교 인정교과서 현황을 우선 서울특별시부터 인정된 것부터 살펴보면, 2002년에는 홍진복의 <초등한자 1~6>, 2003년에는 홍성식의 <한자와 생활 1~5>, 방인태의 <어린이 한자 1~4단계>, 오덕진의 <아하! 한자 1~4단계>, 2004년에는 김철수의 <한문 1~4>, 이상진의 <재미솔솔한자 1~4단계>, 차광성의 <초등한자(과정1~4)>, 김철수의 <술술 풀리는 한자(기초~2)>, 2005년에는 양혜순의 <한자야 이야기랑 놀자 1~6>, 백형운의 <초등학교 한자 1~6>, 추성범의 <한자 통통 1~4>, 조래채의 <초등학교 한자 1~4>, 장재영의 <즐거운 한자 1~6>, 2006년에는 오시형의 <맛있는 한자 1~6>, 양복실의 <생각의 나이테 한자>, 2007년에는 이용재의 <한자야 놀자 배움1~5>, 황규선의 <호호한자 1~6>, 2007년에는 김종육의 <초등학교 한자 기초~4>, 2008년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의 <명품한자41>가 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에서 인정된 것을 살펴보면, 2003년에 조갑래의 <재미있는 한자마당 1~6>, 이병혁의 <신나는 한자 1~5>, 강종출의 <한자 공부 1~4>가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발행한 것으로는 2004년에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행한 <재미천지 초등한자 1~6>와 김성문의 <창의력 한자 1~6>이 있다.

41) 진철용(2009),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자한문교육』 2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32~34, p.54-명품한자는 실제적으로 인정교과서로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는 아니지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하여 관내의 모든 학교에 보급하였으므로 실제적인 활용도는 인정교과서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04년 이금량의 <초등학교 한자 1~6>, 서강훈의 <초등한자 1~6>, 2007년에는 신현길의 <신나는 컴한자 1~6>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2년 한세용의 <초등학교 한자기초 1~6>, 전북에서는 2006년 안동호의 <한자공부 1~4>, 전남에서는 2005년 장희구의 <재미있는 한자학습 1~6단계>가 있다. 또한, 경남에서는 거창교육청에서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발행한 <초등한자 1~5단계>가 있고, 2004년에 대한교과서가 발행한 <한자 1~6학년>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정교과서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부분에서 대부분이 편찬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서울에서는 18종의 인정교과서과 있고, 부산과 인천은 각각 3종, 대구와 경남은 각각 2종, 경기·전북·전남은 각 1종의 인정교과서가 있다. 이러한 인정교과서는 대부분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강원도나 제주도, 광주에 경우에는 인정교과서가 없는 상태이다. 아무래도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인정교과서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한자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이 속한 도시에서 인정 받은 교과서를 쓰기에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정교과서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를 펼쳐 보면 교육 내용으로서의 '한자' 자체에 대한 섬세한 접근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추세는 음과 뜻의 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활동이나 게임 등 단원의 학습 한자를 활용한 지도 방법의 개발에 적극적인 것 같다. 물론 다채로운 활동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나, 한자 자체에 대한 정밀한 탐색은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므로 초등학교 과정에서 익혀야 할 한자가 몇 자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600자의 한자를 기준 한자로 제정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인정교과서에는 501~600자의 한자를 수록한 교과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의 한자 600자를 익히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한자에 있어서 부수는 매우 중요하다. 영어에는 알파벳이 있고,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을 잇듯이, 한자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부수이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에게 214자 부수를 전부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많이 쓰이지 않는 鼠, 龠, 黻, 鬯, 黽 등은 학생들에게 굳이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부 사설 학원이나 동영상 강의를 보면 많이 쓰이지 않는 부분까지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한자는 글자가 복잡하기도 하고, 암기하기 어렵다는 인상만 더해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이 중 많이 쓰이는 부수 40~50개 정도를 골라, 한자를 학습하기 이전에 우선 학습을 하면 초등학교 배정한자 600자를 익히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인정된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논고에서 다룰 자원을 활용한 방법과 형성자의 성부를 활용한 방법의 문제점을 살펴 보겠다. 한자 공부에 있어서 훈과 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자의 훈과 관련 있는 자원을 아는 것은 한자 교과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인정교과서에서 일부 한자 교과서는 한자의 음, 뜻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원과 전혀 관계도 없으면서 흥미 위주로 어원을 풀이해 놓은 경우가 많다. 물론, 한자의 원형과 변천에 대해 현재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는 각기 다른 어원들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

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어원에 맞게 교재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50여종이 넘는 인정교과서에서 자원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숙고하였는지에 대해 집필자, 관련 연구자들이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의 정확한 이해는 정확한 의미 전달로 이어진다.

또한, 사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한자교육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이전부터 공부해 온 학습지의 경우, 한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학습지의 특성상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자 전문 학습지인 장원한자의 어느 취업 포털사이트의 구인광고를 살펴 보면, 자격요건이 자격 요건이 "초대졸 이상자 또는 교육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⁴²⁾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한자를 굳이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생들이 비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경우, 무조건 쓰기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가기 쉬우므로, 학생들에게 '한자는 재미없고, 지루한 과목'이라는 인상을 남겨주기 쉽다.

본 논문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효율적인 한자 학습을 방법을 제시하여 올바른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잡코리아, http://www.jobkorea.co.kr/List_GI/GIB_Read.asp?GI_No=6662773

IV. 효과적인 教育方法 摸索

1.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방법

1) 교육과정 해설서에서의 교육방법

초등한자는 아직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에 입학해서 한문교과를 국가수준 차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의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있는 한자교육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자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한문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부터 살펴보겠다. 몇 가지 수업 방법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토의 학습법 : 문제 해결을 위해 학급 전체에서 학습자와 교사 또는 학습자 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학습법이다.
- 역할 놀이 학습법 : 학습자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학습법이다.
- 토론 학습법 : 문제 해결을 위해 학급을 몇 개의 작은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끼리 학습 내용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둠별로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학습법이다.
- 비교 학습법 : 둘 이상의 학습 내용이나 또는 같은 내용이라도 달리 적용되는 학습 내용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여 학습의 수준을 넓혀 가는 학습법이다. 한자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습법이다.

보기) 左↔右, 長↔短, 前↔後, 善↔惡

- 부수 중심 지도법 : 부수의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한자로 확장하는 학습법이다.

보기)

	↗	霜		↗	財	
雨	→	雲	또는	貝	→	貧
	↘	雪		↘	貴	

부수는 자형상에서 한자의 공통부분을 대표하는 기본적 요소이므로 이들 기본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214종의 부수 한자 가운데 166자가 상형과 지사로 만들어진 單字體이므로, 이를 심도 있게 학습한다면 시각적 인지도가 높아져 한자를 쉽게 기억하고 한자의 원 뜻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한자의 구성원리의 대강을 파악하여 새로운 한자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水'가 사용되는 부수를 보면, 氷, 江, 湖, 沐, 浴 등 '물'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부수는 수 많은 한자는 계통별로 분류하여 동일 계열끼리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 구조 분석법 : 한자의 짜임을 분석하여 지도하는 학습법이다. 구조 분석법은 한자의 특성을 살려 그림을 그려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질문 또는 토의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보기) 休 → 人(사람) + 木(나무) : 사람이 나무 밑에 있다. 곧 '쉬다'

材 → 木(나무 : 뜻 부분) + 才 (재 : 음 부분)

구조분석법은 음과 뜻 익히기 단계와 조어단계에서 익힌 한자를 언어 생활과 한문 이해에 적용하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는 학습 내용의 지속적인 把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다.

- 조어 분석법 : 이미 학습한 한자를 서로 결합하여 의미를 점차 넓혀 나가고 한자어까지 익혀서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학습법이다. 즉, 어휘의 짜임을 풀이하여 지도하는 학습법이다.

보기) 年少 : 年 少

나이 어리다 → 나이가 어림

- 언어 활용법 : 한자를 실제 언어 생활이나 학습 내용에 적용하게 하는 학습법이다. 다른 교과와 학습내용이나 언어 생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한자가 도구교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 즉, 어휘를 실제 언어생활이나 학습 내용에 적용하게 하는 학습법이다.

보기) 나는 논어라는 위대한 古典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저것 해석해 보려고 했다.

《안병욱, 사색인의 향연》

- 색출법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신문·서적·표지판·광고 등을 제시하여 학습하거나, 학습한 어휘를 색출하여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한 NIE학습에서 많이 활용하며, 수행평가 등에 활용하기 적합한 학습법이다. 43)

위에서 살펴 본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초등학교에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의 교육과정해설서의 한자교육 방법을 살펴보았다.

43) 교육과학기술부(2008), 한문 과목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pp.213~214

2) 일반적인 초등 한자교육 방법

◦ 노래를 통한 학습법

인터넷에서는 한자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들을 위한 한자를 가르치는 다양한 동영상 강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흥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노래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박상문 음악교실>⁴⁴⁾이라는 사이트에는 급수한자에서부터 논어 • 명심보감 • 천자문 첫걸음을 노래로 구사하였고, 일석이조, 금시초문, 동문서답, 어부지리 등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성어들을 노래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 그 중 어부지리에 대한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개와 도요새가 엉겨 붙어서
죽자 살자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것을 본 낚시꾼이 웬 떡이나
옳다구나 하고서 잡았답니다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바람에
엉뚱한 다른 사람만 좋게 됐다면
이것이 바로 어부지리(漁夫之利)죠
이것이 바로 바로 어부지리(漁夫之利)죠

이는 학생들이 어부지리에 대한 고사까지도 노래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어, 흥미도 있으며, 장기간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외우기 어려운 24절기 또한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 노래를 통한 한자 공부가 초등학생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44) 박상문음악교실, <http://www.mykidmusic.com/chinese/chinese.htm?page=2&keyword=>

◦ 그림을 통한 한자 학습법

이 방법은 시중에 출판된 초등학교 한자 교재의 대부분이 그림으로 학습하게끔 출판되어 있다. 상형 문자의 경우, 그림으로 학습하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馬, 鳥, 山, 川, 日, 月 등의 한자들을 그림을 그려서 변천 과정을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장 흥미있게 한자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자들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600자를 가르치는데에, 그림을 통한 한자 학습법은 상당한 수의 한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쓰이는 40여개의 부수 학습 또한 그림을 통해 가르치면

‘한자는 매우 재미있는 과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부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앞 부분에 부수가 가장 쉽게 설명된 김미화 저자의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한자 비타민 2000>⁴⁵⁾, <저절로 외워지는 한자능력 검정시험 3~2급>⁴⁶⁾ 이 있다.

◦ 한자 카드를 활용한 학습법

한자 카드를 활용한 학습법은 각 단원에서 새로 익힐 한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10까지의 한자를 배운 다음 교사는 그 중 한 글자를 가리키면 합이 10이 되게 하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 家, 族, 父, 母를 익힌 다음 교사가 그 중 한 글자를 들었을 때 짝이 맞는 글자를 찾는 놀이 등이 있다. 그리고 교사가 이미 배운 글자를 필순에 따라 적으면 10점부터 시작하여 한 획씩 더 쓸 때 마다 1점씩 감점하는 놀이를 통해 한자의 필순

45) 김미화(2009),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한자 비타민 2000』, 중앙경제생활사

46) 엄기창(2009), 『저절로 외워지는 한자능력 검정시험3~2급』, 퀸출판사

과 형태를 익히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모둠식 수업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짝이나 여러 명이 먼저 한자카드를 찾는 놀이를 할 수도 있다. 47)

2. 효과적인 한자교육 방법

1) 자원을 활용한 방법

字源 학습법이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4가지, 즉, 象形, 指事, 會意, 形聲과 운용방법 즉, 轉注, 假借의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 학습의 효과는 한자를 유의미 철자로 이해하게 해 주며, 한자를 친숙하게 하여 장기 기억에 도움을 주며 한자를 영상적 매체로 접근시켜 흥미를 유발하며, 반복 학습을 통한 강화 효과를 가져온다.

한자의 자원은 갑골문 이전부터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 형성의 과정이나 원리를 한자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한자의 자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자의 자형, 자음, 자의를 이해해야 한다.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에는 한자의 자원과 관련하여 한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술한 내용들이 나온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갑골문으로부터 금문, 소전으로 변한 한자의 자형 변화 모습을 실거나 한자의 자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자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대부분 자원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고 편의적으로 기술한 것

47) 임명자 외(2006), 『놀이로 배우는 쓱쓱한자』, 대한교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인정교과서

들이 많다. 이는 집필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하면서 한자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데 소홀히 하였으며, 한자학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공구서를 참고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출간한 2차 자료를 근거로 교과서를 구성하다보니 생긴 일로 여겨진다. 중국, 일본 등에서 출간한 한자학 공구서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자형이나 자의에 대하여 바르게 기술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많은 오류가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필자의 반성이 요구된다. 48)

일부 字源은 초등 수준에서 명쾌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자원의 핵심 단서를 활용함으로써 쉽고 효율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鼻”자는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모양을 본떴다,’ 또는 ‘얼굴 가운데 있으며, 공기를 마시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코’를 뜻하는 글자이다.’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鼻’가 코 모양의 상형인 ‘自’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코’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공기를 들이마시는 모양’, ‘받침대 역할을 한다’는 등의 내용은 다분히 ‘冫’를 의식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경우, 굳이 ‘冫’가 형성자의 ‘鼻’의 聲符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힘들더라도, 음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코의 상형인 ‘自’가 의미와 연관됨을 설명하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望’자도 ‘亡’이 聲符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유가 있으면 눈의 상형인 ‘臣’ 부분이 聲符 ‘亡’으로 바뀌어졌으며 본래는 ‘사람이 흠터미(壬) 위에서 눈(臣)을 들어 멀리 (달을) 바라보는 모습’의 상형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도 좋을 듯하다. 설명이 어려우면 변화과정을 그림을 통해 풀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48) 한은수(2009), 「현행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 내용 분석」, 『한자한문교육』 제 23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84~85

자원을 통해 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民'을 보면, '여자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으로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은 '백성'의 뜻', 또는 '초목의 싹처럼 땅에 의지하여 사는 '백성'을 뜻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포로의 눈'과 '흥기'로 이루어진 갑골문을 참조한다면, 이 한자를 통해 단순한 음, 뜻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조차 보장되지 않던 고대 노예제 사회로부터 主權在民의 민주 사회로의 역사의 변천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 사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 갑골문에 보이는 '女'의 字體(무릎 꿇고 앉아 있는 여자가 두 손을 모으고 아래로 시선을 향한 모습)나 '敎'의 형상(셈을 공부하는 아이와 옆에 손으로 매든 든 형상)을 통해 순종을 여성의 미덕으로 여기고, 교육 현장에서 엄한 분위기를 강조했던 관념들은 오랜 어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강조되는 인상적인 자원을 살펴보면, '取'는 적의 시체에서 귀를 자르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는 설명에서, 학습자는 고대 戰場의 살벌한 분위기와 함께 '취하다'라는 뜻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49)

형성문자의 활용방법을 이용하면 한자 읽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수를 함께 설명하여 이해시킴으로써 같은 부수를 가진 글자를 함께 제시하여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한자를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육서를 활용한 방법이다.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은 한자가 만들어진 방법을 말하고,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운용하는 방법 2가지, 즉 轉注와 假借가 있는데, 전자는 이미 만들어진 뜻을 다른 뜻으로 유추하는 방법을 말하고, 후자는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음과 뜻을 다른 것을 표현할 때 빌려 쓰는 방법을 말하는데 주로 외래어를 한자로 옮긴다거나 의성어, 의태어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방

49) 김창호(2005), 「한자교육에 있어서 자원의 문제」, 『한자한문교육』 1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387~388

법을 말한다. 50)

초등학교 인정교과서인 학문사에서 출판된 홍성식의 『한자와 생활』 과, 한자교육평가원에서 출간된 양복실의 『생각의 나이테 한자』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서 발행된 『명품한자』를 토대로 자원을 설명해 보겠다. 이 세종류의 책을 선정한 것은 『한자와 생활』과 『생각의 나이테 한자』는 서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택한 것이고, 『명품한자』 책은 '우리나라 사교육의 1번지'라 불리는 강남권의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책이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명품한자』의 경우, 실제적으로 인정 교과서로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는 아니지만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하여 관내의 모든 학교에 보급하였으므로 실제적인 활용도는 인정교과서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강남의 "o o중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의 일부분을 이 책에서 일부 출제되기도 한다. 이들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10자를 선별하여 교재에 실려있는 자원들을 살펴본 뒤, 허신의 『說文解字』 내용과 <갑골문>에 대한 문자학적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10자의 한자는 초급수준의 萬, 文, 男, 十, 父 중급수준의 食, 鼻, 家 고급수준의 望, 會를 선정하여 살펴보겠다.

'萬'의 어원을 인정교과서에서 살펴보면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많은 수의 무리가 모여사는 벌을 본 뜬(3단계 83쪽)", 『한자와 생활』에서는 '萬'의 어원이 실려있지 않았으며, 『명품한자』에서는 "본래 전갈의 모양을 내려다보고 본 뜬 것인데, 전갈은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숫자의 萬을 뜻하게 된 글자(중급 450)"라고 나와있다. 그럼, 許慎의 <설문해자>에서 보면 許慎이 벌레로 본 이 글자는 구체적으로 전갈로 설명되

50) 원재필(2010), 「한자의 부수와 성부를 활용한 한자이해력 신장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8

어 있다. 갑골문에서는 萬⁵¹⁾은 두 개의 팔, 머리, 몸, 그리고 '꼬리에 독침이 있는 곤충'을 본떴다. 이런 자형에서 '전갈, 벌'이라는 뜻이 나왔고, 금문에서도 '전갈'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 이것이 가차되어 숫자 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명품한자』의 내용이 가장 맞는 표현이 된다. 『생각의 나이테 한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고, 『한자와 생활』의 경우에는 아예 어원조차 기술하지 않았다.

'文'의 어원을 살펴 보면,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글자 획이 이리 저리 엇갈린 모양에서 글월문(3단계 33쪽)" 『한자와 생활』에서는 "사람의 머리로 음과 양이 교차하는 모양을 나타내어 '글월'을 뜻하는 글자(5단계 39쪽)", 『명품한자』에서는 "사람의 가슴에 문신한 모양을 본 뜬 글자(초급 150)" <설문해자>에서 보면⁵²⁾ '좌우가 엇갈리게 그린 것으로, 교차된 꽃무늬 모습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갑골문에서 사람 몸에 음양의 무늬를 본떴다. 이런 자형에서 '문양'의 뜻이 나왔다. 후에 전성되어 글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무늬 모양이 문신으로 쓰기도 한다. 따라서, 3권에서만 맞는 설명이 되겠고, 『생각의 나이테 한자』과 『한자와 생활』은 옳지 못한 설명이 되겠다.

'男'의 어원을 보면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밭에서 힘써 일하는 사람이니, 사내 남(2단계 60쪽)" 『한자와 생활』에서는 "밭에서 힘껏 일하는 사람으로, 남자(1단계 79쪽)", 『명품한자』에서는 "밭에 나가 힘들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데서 남자(초급 30쪽)"으로 세 종류의 교과서에서는 모두 다 같은 어원을 표기하였다. <설문해자>에서는⁵³⁾ '밭 전(田)'과 '힘 력(力)'의 뜻을 합하여 '丈夫'를 뜻하며, "사내가 밭에서 힘쓰는 것"의 의미로 파악

51) 김용걸(1998), 『자원자해』로 익히는 한자, 삼지원, p.381

52) <설문해자> '文' : 錯畫也. 象交文. 凡文之屬皆從文.

53) <설문해자> '男' : 丈夫也. 從田力. 言男子力於田也. 凡男之屬皆男

하고 있다. 따라서, 세 종류의 교과서의 표현은 맞게 기술되어 있다. 사실, '男'의 어원은 한자에 대해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다.

'鼻'의 어원을 살펴보자.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코를 본떠서 스스로 자(自)에 공기를 주고 받는 곳이라는 데서 줄 비(畀)를 붙여 '코 비'(4단계 31쪽)", 『한자와 생활』에서는 "얼굴 가운데 있으며, 공기를 마시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코'를 뜻하는 글자(1단계 7쪽)", 『명품한자』에서는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모양을 본떠 '코'(초급 37쪽)" <설문해자>에서는 '鼻'에 대해 '기를 끌어 스스로 돕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自'와 '畀'를 회의로 보고 있다. 54) 그런데, 『자원자해으로 익히는 한자』 55)에서는 코는 스스로(自)의 뜻과 줄 비(畀)의 음을 결합한 형성자로 본다. 대부분 형성자로 보는 경우가 우세하다. 따라서, 세 종류 모두 어느 정도의 어원 풀이가 맞기는 하나, 『생각의 나이테 한자』이 가장 정확한 어원 풀이라 볼 수 있다.

'十'의 어원 풀이에 대해 살펴보자.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일(一)에 하나(丨)를 그어 한 묶음인 열을 나타내어 '열 십'(1단계 91쪽)", 『한자와 생활』에서는 "다섯 손가락씩 있는 두 손을 엇걸어 '열'을 가리킨 글자", 『명품한자』에서는 "손가락을 펴고 두 손을 엇갈려 '열'을 나타낸 글자" 라고 되어 있다. <설문해자>에서 살펴보면 56), "숫자가 완비된 것으로, '一'은 동서를, '丨'은 남북을 표시하니, 동서남북 중앙이 모두 완비되어 있다." 라고 설명한다. 이를 풀어보면, 고대에 가로선으로 10미만의 수를 세었고, 세로선으로 10을 나타냈다. 소천자에서 십은 동서남북과 중앙이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숫자에 있어서는 '십'을 나타냈다. 이런 자형에서 '열', '네거

54) 『설문해자』 '鼻': 引氣自畀也 從自畀. 凡鼻之屬皆鼻.

55) 김용걸(1998), 『자원자해으로 익히는 한자』, 삼지원, p.506

56) <설문해자> '十': 數之具也. 一爲東西 丨爲南北, 則四方中央備矣. 凡十之屬皆從十

리'의 뜻이 나왔다. 따라서,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불충분한 설명이고, 『한자와 생활』과 『명품한자』에서 제시된 자원과는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父'의 어원을 살펴보면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나누어(八) 어질게(父) 가르치는 분이니, 아버지(1단계 14쪽), 『한자와 생활』에서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1단계 85쪽), 『명품한자』에서는 "손에 매를 들고 자식을 가르치는 아버지(초급 28쪽)"으로 실려있다. <설문해자>의 어원을 보면 "손으로 매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가장으로서 집안을 주도해 나가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갑골문⁵⁷⁾에서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훈계하는 아버지의 모양을 본떴다. 따라서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의 설명만이 애매모호한 설명이 된다. 『한자와 생활』과 『명품한자』는 어원에 근거한 설명이 되겠다.

'食'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면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사람(人)이 몸에 좋은(良) 것을 먹으니, '밥 식'(3단계 19쪽)", 『한자와 생활』에서는 "곡식을 모아 놓은 모양으로 '밥'을 뜻한 글자(4단계 25쪽)", 『명품한자』에서는 "밥그릇에 따뜻한 밥이 담겨있고, 뚜껑이 있는 모양을 본 뜬 글자(중급 43쪽)"으로 기록되어 있다. <설문해자>에서 보면 "모아놓은 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갑골문>⁵⁸⁾에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食은 밥그릇에 밥을 두둑이 담은 모양"에서 본떴다. 이런 자형에서 밥의 뜻이 나왔다. 그러나 『생각의 나이테 한자』의 설명은 <설문해자>의 해석과, <갑골문>의 해석과 전혀 관계 없는 설명이다. 『한자와 생활』의 설명은 <설문해자>의 설명과 가깝고, 『명품한자』는 <갑골문>의 설명과 가깝다.

57) 김용결(1998), 『자원자해으로 익히는 한자, 삼지원, p.286

58) 김용결(1998), 『자원자해으로 익히는 한자, 삼지원, p.488

'家'의 어원을 살펴보겠다.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집(宀)에 돼지(豕)처럼 먹고 자고 하는 곳이니 '집 가'(4단계 31쪽)", 『한자와 생활』에서는 지붕(宀)이 있는 돼지(豕) 우리를 뜻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사는 '집'(3단계 13쪽)", 『명품한자』에서는 "집에서 돼지를 길렀다는데서 집을 뜻하는 글자(초급 110쪽" 각각 내용이 비슷해 보이나, 하나 하나 따져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설문해자>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거처하는 곳(居)"의 뜻을 가진다. 갑골문에서 보면 家는 돼지나 가축을 기르는 우리를 나타냈다. 이런 자형에서 전성되어 사람이 사는 집이 되었다. 따라서, 『한자와 생활』의 설명이 정확한 자원풀이가 되겠다. 『명품한자』의 설명은 약간 차이가 있고, 『생각의 나이테 한자』은 흥미에 맞춰 어원을 설명한 잘못된 풀이가 된다.

'望'의 어원을 살펴보면,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없는(亡) 달(月)이 뜨기를(壬) 바라니 '바랄 망'(4단계 19쪽)", 『한자와 생활』은 어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한자만 실려있다. 『명품한자』은 "정신이 없는(亡) 사람처럼 멍하니 달(月)을 쳐다보고 서서(壬), 길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데서 '바라다'(고급 36쪽)" 라고 실려있다. <설문해자>에 실려있는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가 밖에 있으므로 집안에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갑골문>⁵⁹⁾에서는 신하가 임금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달을 우러러 보는 것을 나타냈으며, 소전자에서는 길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를 달보며 기다리는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세 종류의 인정교과서 설명이 <설문해자>에 따른 설명이 되겠다.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 내용은 <설문해자>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會'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각의 나이테 한자』에서는 "사람이 하나 같이 마음의 창을 열고 말하기 위해 모이니 '모일 회'(6단계 139쪽), 『한자와

59) 김용결(1998), 『자원자해으로 익히는 한자, 삼지원, p.224

생활』에서는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람의 수효가 점차 더해가니 '모오다'(5단계 18쪽), 『명품한자』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거듭하여 많이 모인다(고급 82쪽)" <설문해자>⁶⁰⁾에서는 '스(삼합 집)'과 '숭(거듭 증)'이 결합된 것으로 '모오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갑골문>에서는 그릇에 곡식을 담아 뚜껑을 꼭 맞추는 것으로 나타냈으나, 소전자에서는 자형이 會로 변하여 거듭거듭 모으는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생각의 나이테 한자』의 해석은 전혀 관계가 없는 짜맞추기식 해석이고, 『한자와 생활』이나 『명품한자』의 해석에서는 사람의 수효가 거듭하여 많이 모인다는 식으로 해석했는데, <설문해자>나 <갑골문>의 곡식을 담아 뚜껑을 모은다는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인정교과서 3종류의 자원에 대해 <설문해자>와 <갑골문>을 통해 분석해 봤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어느 정도 어원에 가깝게는 실으려고 노력한 경향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혀 어원과 관계없는 것들은 어원 자의가 명확한 것만 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해자>의 어원을 제시하고, <갑골문>의 어원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어원을 제시할 경우, 학생들이 한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원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기억해야 할 한자의 훈과 음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본의를 흐리는 일이므로 삼가야 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설문해자>에 근거한 어원이든 <갑골문>에 근거한 어원이든 반드시 실어야 한다. 조사를 하다보니, 어원을 실지 않은 교과서들이 간혹 보였는데, 이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 어원이 없을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에 무조건 암기식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자는 무조건 암기

60) <설문해자> '會': 合也. 從ス會省, 會, 益也. 凡會之屬皆從會. 古文會如此.

하는 재미없는 과목"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어원을 통해 암기하는 것이 어렵든 쉽든 간에, 필자는 한자의 어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도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듯이, 한자 또한 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자 교과서를 집필하는 집필자들은 반드시 어원에 대해 <설문해자>나 <갑골문>에 근거한 어원들을 교과서에 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한자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어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한자를 쉽게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위의 인정 교과서 중 어원이 잘못 실린 한자 몇 개를 골라 필자가 "자원을 통한 교수-학습지도안"을 계획하였다.

단원명	1. 자원을 통한 한자공부	차 시	1	교과서	p.3~10
학습목표	1. 한자의 자원이란 무엇인지 이해한다.				
	2. 한자의 자원을 통해 한자를 풀이할 수 있다.				
	3. 한자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계	지도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지도상의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 전시 학습 확인,	▷ 전시학습(한자의 기 원)	▷ 전시학습(한자는 갑 골문에서 비롯되었음) 상기	2'	학습목표 따라읽기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 위의 3가 지 제시	▷ 학습목표 확인		
전 개	• 자원 학습 법의 정의	▷ 자원이란 무엇인가? - 字源학습법이란?	▷ 자원학습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자 공 부를 재밌게 할 수 있 다.	30'	음, 뜻이 적힌 한 자 카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한자의 자원 • 한자의 음과 뜻, 필순 • 한자어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p>▷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까? (文, 萬, 男, 鼻, 十)</p> <p>▷ 어원을 설명해주면서 음과 뜻을 설명하고, 필순에 맞게 한자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오늘 배운 한자를 통해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어를 지도한다.</p>	<p>▷ '文'은 사람 몸의 음양의 무늬를 본떴고, '萬'은 '전갈'의 모양을 본떴다.(十, 男, 鼻의 자원도 이해한다.)</p> <p>▷ 어원을 통해 오늘 배운 5글자를 이해한 뒤, 소리내어 음, 뜻을 외고, 써 본다.</p> <p>▷ 한자가 쓰인 한자어를 읽고 학습한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 형성평가 	<p>▷ 어원을 통해 한자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음을 상기</p>	<p>▷ 오늘 배운 한자의 어원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음을 확인한다.</p>	8'	

이처럼, 한자의 자원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한자를 쉽게 이해하여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줄 뿐만 아니라, 字體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워준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교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부족하거나 다양한 학설을 선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 지식이 미약하여 자원을 활용한 수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과서 집필자들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학습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자들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의 개발에 힘써야한다. 61)

2) 부수를 활용한 방법

部首는 字典에서 한자를 찾는 길잡이가 되는 글자의 한 부분이다.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9,353자의 표제자에 대하여, 540개의 '部'를 세워 문자를 분류 수록하는 방법, 즉 '부수법'을 창안하였는데, 檢字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데에는 불편했을 것이다. 후대에, 편의성과 실용성이 중시됨에 따라 書體가 小篆에서 楷書로 변화됨으로 인하여, 清代의 『康熙字典』 이르러서는 214부로 필획순이 정리되었다.⁶²⁾

부수는 자형상에서 한자의 공통부분을 대표하는 기본적 요소이므로 이들 기본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石井勳은 부수를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한자 학습을 능률적으로 하는 제일의 방법이라 하여 한자 학습에서 부수 지도의 효과를 강조하였다.⁶³⁾

물론, 부수가 오히려 전체 글자의 의미와 전혀 관계 없는 상황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求"자의 원래 의미는 털이 밖으로 보이는 가죽옷을 의미하고, 지금 사용되는 의미는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 글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水"방에 분류하여 놓고 있다. 이 때 "水"자는 "求"의 본의와는 관계없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자의를 이해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61) 한은수(2009), 「현행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 내용 분석」, 『한자한문교육 제 23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87

62) 최영애(1995), 『한자학강의』, 통나무, pp.65~70

63) 石井勳(2002), 『한자교육혁명』, 두뇌개발, p. 24 참조.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64)

부수는 자형상에서 한자의 공통부분을 대표하는 기본적 요소이므로 이들 기본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214종의 부수 한자 가운데 166자가 상형과 지사로 만들어진 單字體이므로, 이를 심도 있게 학습한다면 시각적 인지도가 높아져 한자를 쉽게 기억하고 한자의 원 뜻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한자의 구성원리의 대강을 파악하여 새로운 한자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手'가 부수로 활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技, 擊, 拜, 援, 指 등 모두 '손'과 관련된 뜻을 가진 글자라고 유추하면 된다. 즉, 부수는 많은 한자를 계통별로 분류하여 동일 계열끼리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부수에 속하는 한자는 공통의 개념을 공유하며, 이를 통하여 이미 익힌 하나의 한자를 바탕으로 부수가 동일한 다른 한자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貝部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 옛날에는 조개를 껍질을 화폐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貝가 부수로 들어가는 한자들은 재물이나 돈과 관계 있는 글자가 된다. 財는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貨는 재물을, 貧은 재물이 나뉘어져 적다는 것을, 貴는 비싸다는 뜻을 갖고 있어, 모두 돈이나 재물과 연관되어 있음을 貝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수를 알면 동일한 부수의 다른 한자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65)

이처럼, 한자의 의미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는 부수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자의 효과적인 학습은 한자의 구성

64) 이경숙(2004), 「형성자의 성부를 이용한 한자교육에서의 응용」, 『한문학보』 제 10집, 우리한문학회, p.292

65) 김은정(200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9

요소인 부수를 분석하는데서 출발한다.

부수를 유형별로 지도하면, 다음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이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6)

- ① 학습자 스스로 부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 ② 식별된 부수는 자전을 이용하는 기초가 된다.
- ③ 부수와 여타의 부분으로 구성된 한자의 구성원리가 이해된다.
- ④ 구성원리를 통하여 한자의 의미와 음이 이해된다.
- ⑤ 한자의 의미가 이해되면, 그 한자가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造字되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

부수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

- ① 부수가 글자의 왼쪽 부분을 차지-----변
이에 속하는 부수는 부수로서의 명칭 뒤에 '변'을 붙인다.
예) 亻(사람인 변), 忄(심방 변), 扌(재방 변), 彳(삼수 변)
- ② 부수가 글자의 오른쪽 부분을 차지 -----방
이에 속하는 부수는 부수로서의 명칭 뒤에 '방'을 붙인다.
예) 冫(선칼도 방), 欠(하품흙 방)
- ③ 부수가 글자의 윗 부분을 차지 -----머리
이에 속하는 부수는 부수로서의 명칭 뒤에 '머리'를 붙인다.
예) 丩(돼지해 머리), 冫(갓 머리), 扌(손톱조 머리)
- ④ 부수가 글자의 아랫 부분을 차지 -----발
이에 속하는 부수는 부수로서의 명칭 뒤에 '발'을 붙인다.
예) 儿(어진사람인 발), 灬(연화 발), 忄(마음심 발)
- ⑤ 부수가 글자의 위와 왼쪽을 덮음 -----엄

66) 안승덕(1993), 「教育漢字指導法序說」, 『한자교육론』, 아세아문화사. p.209

이에 속하는 부수는 부수로서의 명칭 뒤에 '엄'을 붙인다.

예) 尸(주검시 엄), 广(범호 엄), 疒(병질 엄)

⑥ 부수가 글자의 왼쪽과 밑을 감쌌음 -----받침

이에 속하는 부수는 부수로서의 명칭 뒤에 '받침'을 붙인다.

예) 攴(민책 받침), 扌(책 받침)

⑦ 부수가 글자의 둘레를 감쌌음 -----에운담, 몸

이에 속하는 부수는 부수로서의 명칭 뒤에 '몸'을 붙인다.

예) 凵(위튼입구 몸), 凵(감출혜 몸), 凵(에울위 몸)

⑧ 한 글자가 그대로 부수인 것 ----- 제부수

부수 자체가 글자인 것으로 독립된 형태이다.

예) 一, 二, 人, 口, 山, 天, 大, 小, 日, 月, 子, 女 등

그렇다면 부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부수는 많은 한자를 계통별로 분류하여 동일 계열끼리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부수에 속하는 개별 한자는 의미상으로는 유사한 개념이 되며, 하나의 한자를 익히면 동일 부수의 다른 한자를 연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⁶⁷⁾ 부수자는 모두 214자이며 대부분은 상형과 지사로 한자의 造字적 특징을 연관시켜 지도한다면 쉽게 그 뜻을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攴'을 '민책받침'이란 俗稱만 강조해서 '扌(책받침)'에서 점(丶:점 주)을 빼서 '扌(민책받침)'이라는 것만 알려주다 보면, '延(끌 연)'의 부수를 이해할 때, '攴(민책받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유추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속칭인 '攴(민책받침)'을 알려주기 보다 '길게걸을 인'을 알려주면서, '延(끌 연)'와 연관지어 설명해주면 된다. 그리고, '延(끌 연)'가 쓰는 예제 한자어까지 함께 延期, 延滯, 延長 등을 알려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7) 안승덕(1993), 『한자교육론』, 아세아문화사, p. 240 참조

그럼, 이쯤에서 초등학교 배정한자 가운데 많이 쓰이는 부수 40개 정도와 40개 부수의 어원을 살펴보겠다. 그를 통해 부수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짜보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부수(68)를 참고하여 지도안을 만들어 보았다. 교과서는 임의적으로 필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적은 것이다.

단원명	5. 한자의 부수 - 새와 물고기	차시	2	교과서	p.4~8
학습목표	1. 부수의 정의를 알고, 각 부수에 해당하는 한자를 말할 수 있다.				
	2. 부수는 대부분이 뜻과 관계있음을 이해한다.				
	3. 부수를 통해 자전을 찾을 수 있다.				

단계	지도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 전시 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전시 학습(한자의 자원에 대한 이해) ▷ 학습목표 위의 3가지 제시	▷ 전시 학습(전 단위 자원 단위) 상기 ▷ 학습목표 확인	2'	학습목표 따라읽기
	• 부수의 정의 • 가장 많이 쓰이는 부수	▷ 부수란 무엇인가? - 한자의 기본이 되는 글자로, 214자의 부수가 있다. 부수 위치에 따른 명칭 간단 설명 ▷ 가장 많이 쓰이는 부수인 水, 手, 人, 木, 口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각각 관련된 한자를 알려준다. (江, 技, 休, 植, 名)	▷ 한자의 부수에 대한 이해, 부수가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쓰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가장 많이 쓰이는 부수를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소리내어 필순에 맞게 적어본다. 부수와 관련된 한자를		

68) 이영수(2004),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수 및 성부 활용 연구」, 『한자 한문 교육』 제 1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 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의 음과 뜻, 필순 • 부수를 통해 자전 찾기 	<p>▷ 부수에는 변형이 있음을 가르쳐준다.</p> <p>▷ 자전은 한자를 찾는 사전임을 알려주고, "休"의 자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人변에 나머지 획수인 4획을 알려주어 찾는 방법을 보여준다.</p>	<p>이해한다.</p> <p>▷ 각 부수의 변형된 모양을 이해한다.</p> <p>▷ 자전을 통해 "休"를 찾아본다. 부수는 한자의 뜻과도 관련 있지만, 자전을 찾을 때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한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 형성평가 	<p>▷ 정리(부수란, 부수의 변형이란?)</p> <p>▷ "植"자전찾기</p>	<p>▷ 부수의 정의와 부수의 변형에 대해 발표해본다.</p> <p>▷ "植"을 자전을 통해 찾아본다.</p>	8'	

육서 중에 학습해야 할 한자는 초등학교 수준의 600자 한자를 부수로 갖고 있는 한자는 전부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수를 30개 가량을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水, 手, 人, 木, 口, 心, 言, 糸, 土, 肉, 金, 女, 日, 火, 艸, 貝, 刀, 竹, 疒, 禾, 虫, 犬, 衣, 頁, 目, 石, 足, 力" 정도이다. 69)

3) 육서를 활용한 방법

六書는 形·音·義 3요소로 구성된 한자를 구조적으로 분류하여 의미를

69) 이영수(2004),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수 및 성부 활용 연구」, 『한자 한문 교육』 제 1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 385 <부수 순위표 참조>

형성하는 법칙과 이를 운용하는 법칙을 귀납적으로 추출한 六種의 원칙으로, 간단한 造字 원리로부터 무궁무진한 글자의 의미를 터득할 수 있는 기본 원리다. 육서별 분류에 따르면 상형과 지사는 창조적 造字 원리이고, 회의와 형성은 결합의 造字 방법이며, 전주와 가차는 用자의 방법이다. 7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육서 중심의 한자 분석을 위주로 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육서는 어디까지나 造字 및 運用의 원리이지 분류 기준은 아니며, 처음부터 이 원리에 따라 한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한 글자에 한 가지 원리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⁷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서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많다는 것은 육서에 의한 방법이 한자 학습에 유력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를 형성원리에 따라 지도하려면 먼저 한자의 구성 원리인 六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六書란 수만 자가 넘는 한자들을 漢나라 때의 학자들이 구조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 형성의 법칙과 운용하는 법칙을 귀납적으로 추출한 이론이다.

한자를 학습하려 할 때에는 이러한 한자의 造字원리와 발전과정을 항시 염두에 두고 학습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되므로 상형·지사·회의·형성은 자형과 조자원리를 통한 字源 해설 한자학습을 실행하였으나, 전주와 가차는 구분의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용어의 정의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한자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72)

우선, 먼저 한자의 구조와 운용 방법을 귀납한 육서의 원리를 표로 정리

70) 김은정(200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17

71) 강혜근(1996), 「六書互兼說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 제 28집, pp.357~381
宋代 鄭樵의 육서 분류에 처음 보이는 견해로서, 조자 방법은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주장, 곧 '육서호겸설'이 있음

72) 김은정(200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27

하면 다음과 같다. 73)

명칭	내용과 본질	부동성		
象形	본뜰 수 있는 실체의 형이 있으므로, 명사가 많다. 예 : 日, 鳥, 魚, 龜	實	依類象 形	體 : 造 字 法
指事	본뜰 수 있는 실체가 없어 추상의 형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와 동사가 많다. 예 : 一, 上, 下, 八.	虛		
會意	형부와 형부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낸다. 예 : 武, 信, 公, 仁.	形	形聲相 益	
形聲	형부와 성부가 서로 결합하여, 반은 종류를 반은 聲 을 나타낸다. 예 : 江, 河, 松, 柏.	聲	合體爲 字	
轉注	그 작용은 同義異形의 자를 互釋하여 능히 歸類케 하 는데 있다. 예 : 考/老, 袒/楊.	繁	·	
假借	그 작용은 성의 같고 뜻이 가까운 자를 빌려 조자의 곤란을 더는 데 있다. 예 : 旻, 長, 離, 易.	省		

제자원리를 적용하여 분석적으로 한자를 지도한다면 한자의 이해와 기억

73) 이돈주(1989), 『한자학총론』, 박영사
임 윤(1994), 『중국문자학개론』, 형성출판사

에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육서가 모든 한자의 제자원리인 것은 사실이나 한자 하나를 고찰해 보면 회의와 형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전주와 가차자의 구별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자들을 학생들에게 육서에 의해 가르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육서는 반드시 제자 원리가 뚜렷한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구별이 정확한 것만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상형자"를 살펴보겠다. 상형자는 비교적 글자가 간단하고, 문자를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그림을 통한 지도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단계에 상형자를 배우면 좋은 방법이 된다. 유아용 한자학습지나 초등학생들을 위한 한자학습지에는 대부분 상형자가 많이 실려 있으며, 항상 그 글자의 변천과정과 함께 그림이 실려있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가 "한자"라는 두 글자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어렸을 때 보았던 그림 문자가 변천이 되어 지금의 한자가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때 우리는 한자가 "흥미롭고 신기한 글자"라는 인식을 했었다. 따라서, 상형자를 지도할 때에 빠뜨지 말아야 할 것이 그림이다. 그림 카드던 그림표든 한자가 만들어진 그림들을 준비하여 변천된 과정들을 그림과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지도한 뒤, 한자의 필순을 지도한다. 그리고, 한자가 쓰이는 일상생활 속의 한자어를 지도한다. 가능하면 부수와 연관지어, '상형자는 쓰이는 부수로 쓰이는 한자가 많다'는 것까지 인지시켜 주면 좋은 수업 방법이 된다.

상형자를 지도할 때에는 그림을 활용하며,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 한자의 뜻을 찾아내기 위한 학습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 때는 반드시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자를 익힐 때에는 그 한자를 쓰는 획순에 대해 지도한다. 상형자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보았다. 제시할 교수-학습

지도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3년에 인정된 인정교과서인 『한자와 생활』 2단계를 통해 지도안을 작성해보았다.

단원명	5. 한자와 생활 - 새와 물고기	차 시	5	교과서	p.32~37
학습목표	1.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의 짜임을 알 수 있다.				
	2.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다.				
	3. 한자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단계	지도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 전시학습 확인, • 학습목표 제시	▷ 전시학습(동물과 식물 단위 확인)	▷ 전시학습(동물과 식물 단위) 상기	2'	학습목표 따라읽기
		▷ 학습목표 위의 3가지 제시	▷ 학습목표 확인		
전개	• 육서의 정의 • 상형자의 만들어진 과정 • 한자의 음과 뜻, 필순	▷ 육서란 무엇인가? - 한자가 만들어진 제자 원리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를 육서라 한다. ▷ 상형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며, 대부분이 제부수로 쓰인다. ▷ 칠판에 필순이 완성돼가는 과정을 쓰면서 보여준다. 한자카드를 통해 음과 뜻을 따라 읽힌다.	▷ 육서의 정의에 대한 이해, 상형과 지사는 글자의 창조 원리이고, 회의와 형성은 결합원리임을 안다. ▷ p.33의 그림을 통해 鳥, 蟲, 魚, 貝가 상형자임을 이해하고, 부수로 쓰이는 한자임을 안다. ▷ 칠판을 보고, 필순에 맞게 한자를 쓸 수 있으며, 음과 뜻을 학습한다.(pp.36~37)	30'	음, 뜻이 적힌 한자 카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어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34를 통해 한자어를 문장 속에 넣어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34를 통해 각각의 한자어가 쓰이는 예를 안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 형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풀이를 통한 정리 ▷ 배운한자를 통한 짧은 글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35를 풀어본다. ▷ 오늘 배운 한자를 통해 짧은 글짓기를 해본다. 	8'	

두 번째로, 지사자를 살펴보겠다. 지사자는 상형자와 더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이며, 상형자와 마찬가지로 획이 상당히 간단해서 초학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이 적다. 지사자는 상형자처럼 그림을 통해 그림을 보여주면서 지도하기는 어렵다. 지사자 자체가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것을 점이나 선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뜻을 시각적으로 추리하여 발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사자는 도형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지사자 역시 부수로 쓰이는 한자가 많이 때문에, 지사자와 부수도 연관시켜 지도한다.

지도하기에 앞서 육서의 개념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그 가운데 지사는 상형자처럼 제자 원리로 추상적인 것을 점이나 선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방법임을 강조한다. 지도자도 비교적 간단한 자를 지도하였으며, 아직 초학자의 단계이므로, 필순지도도 필요하다.

지도방법으로는 지도할 한자를 제시하고, 그 문자의 자획 하나 하나가 기호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도한 뒤, 문자에서 찾은 기호화된 요소와 그 문자의 字意를 연결하여 일치시킨다. 자음과 필순을 지도한 뒤,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어를 지도한다. 지사자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보았다.

단원명	3. 지사자/ 上中下	차 시	3	교과서	p.22~27
학습목표	1. 추상적인 것을 점이나 선을 통해 나타낸 한자의 짜임을 안다.				
	2.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한자를 쓸 수 있다.				
	3. 한자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계	지도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지도상의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 전시학습 확인,	▷ 전시학습(상형자 단 원 확인)	▷ 전시학습(사물의 모 양을 본뜬자가 상형자 임을) 상기	2'	학습목표 따라읽기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 위의 3가 지 제시	▷ 학습목표 확인		
전 개	• 육 서 의 정의	▷ 육서란 무엇인가? - 한자가 만들어진 제 자 원리로, 상형, 지 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를 육서라 한다.	▷ 육서의 정의에 대한 이해, 상형과 지사는 글자의 창조 원리이고, 회의와 형성은 결합원 리임을 안다.	30'	음, 뜻이 적힌 한 자 카 드 준비
	• 지사자의 만들어진 과 정	▷ 지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추상적인 것을 점이나 선을 통해 나타낸 글자, 점이나 선을 통 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주고, 한자가 부 수로 많이 쓰임을 설 명한다.	▷ 지사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점이나 선을 사용하여 나타낸 글자로 한자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부 수로 쓰이는 한자가 많음을 안다.		
	• 지사자의 종류	▷ 지사자의 예를 알려 준다. 一, 二, 三, 上, 中, 下, 本, 末을 설명 해 준다.	▷ 지사자의 예를 이해 한다.		
	• 지사자를				

	써보기 • 한자어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필순에 맞춰 음, 뜻과 쓰기를 지도한다. ▷지사자를 넣어 짧은 글짓기를 해본다.	▷음과 뜻을 알고, 필순에 맞게 쓴다. ▷지사자를 이해하고, 짧은 문장을 완성해본다.		
정리	• 정리 • 형성평가	▷칠판에 제시된 문제 풀기 ▷ '天'이 무슨자인지 생각해보기	▷지사자를 이해하며 문제를 푼다. ▷오늘 배운 수업을 통해 '天'이 지사자임을 안다.	8'	

세 번째, 회의자에 대해 살펴 보겠다. 회의자는 이미 만들어진 두 개 이상의 한자를 조합하여 뜻과 뜻을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지는 짜임으로, 결합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그것의 자형과 의미상의 결합과정을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지도 방법은 지도할 한자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된 요소의 한자들의 그림을 제시한다. 그 뒤, 분석된 요소 하나 하나의 뜻과 그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뜻의 문자가 이루어진 과정을 유기적으로 설명한다. 자음과 필순 지도 후, 한자가 쓰이는 일상 한자어를 지도한다.

회의자를 지도할 때에는 분석된 한자들의 그림을 모사하여 한자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뜻과 뜻이 결합하여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학습이 효과적으로 상형과 지사의 그림을 활용하였고, 한자의 훈, 음, 필순을 지도하였다.

예) 人(사람: 뜻 부분) + 言(말 : 뜻 부분) = 信(믿을 신)

日(해 : 뜻 부분) + 月(달 : 뜻 부분) = 明(밝을 명)

회의자를 통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살펴보겠다.

단원명	회의자/明, 休, 信, 光, 名, 相, 公, 見	차시	4	교과서	42~48쪽
학습목표	1. 둘 이상의 한자가 합해 새로운 뜻을 만드는 한자의 짜임을 안다. 2. 한자의 음과 뜻을 읽고, 쓸 수 있다. 3. 한자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단계	지도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 전시 학습 확인,	▷ 전시 학습(지사자에 대한 확인)	▷ 전시 학습(지사자에 대해 예를 든 글자 기억해 보기) 상기	2'	학습목표 따라읽기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 위의 3가지 제시	▷ 학습목표 확인		
전개	• 육서의 정의 • 회의자의 만들어진 과정 • 회의자의 종류 제시	▷ 육서란 무엇인가? - 한자가 만들어진 제자 원리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를 육서라 한다. ▷ 회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둘 이상의 한자를 합해서 만들되, 뜻과 뜻을 결합한 글자임을 설명. ▷ 오늘 배운 한자인 明, 休, 信, 光, 名, 相, 公, 見을 뜻과 뜻이 합해서 만들어진 회의자임을 설명한다. ▷ 칠관에 필순이 완성	▷ 육서의 정의에 대한 이해, 상형과 지사는 글자의 창조 원리이고, 회의와 형성은 결합원리임을 안다. ▷ 회의자는 이미 만들어진 한자자의 뜻부분과 뜻부분을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글자임을 안다. ▷ 칠관을 보면서 회의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한다. 각각의 종류를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기억한다. ▷ 칠관을 보면서 한자의 필순을 통해 쓰는	30'	음, 뜻이 적힌 한자 카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의 음과 뜻, 필순 • 한자어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p>때가는 과정을 쓰면서 보여준다. 한자카드를 통해 음과 뜻을 따라 읽힌다.</p> <p>▷오늘 배운 한자를 바탕으로 짧은 글 짓기</p>	<p>방법을 익히고, 음과 뜻을 익힌다.</p> <p>▷오늘 배운 한자를 통해 짧은 글 짓기를 하여 한자어를 일상생활에 활용한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통한 정리	▷칠판에 제시된 회의자 관련 문제를 푼다.	8'	

다음은 형성자에 대해 살펴보겠다. 형성자는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결합할 때, 한 쪽은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한쪽은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문자다. 형성자 역시 그림을 활용한 지도가 효과적이다. 74) 형성자의 성부를 활용한 방법은 한자교육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육서 중에서 가장 강조하여 설명하겠다.

形聲이란, 字義를 나타내는 부분인 形符와, 字음을 나타내는 부분인 聲符의 결합에 의한 造字 원리이며, 형성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한자를 형성자라한다. 75) 『康熙字典』에 실린 47,035字 중에서 약 42,330字가 형성자라고 한다. 한자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한자 형성자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자를 상당히 아는 사람

74) 김은정(200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34

75) 형성자는 갑골문에서 약 20%, 청대에 약 81%, 당대에 약 90%, 현대 한자에는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최영애, 한자학강의, p88)

唐蘭은 『古文字學導論』에서 象形문자, 象意문자, 形聲문자로, 육서설에 대하여 三書說을 주장하였는데, 형성의 특징을 '造字 방식이 용이한 것'이라 하였다.

들은 대부분 형성자 원리에 의거하여 한자를 기억하고 자전을 찾으며, 음을 알면 通假借의 원리를 적용한 의미의 유추까지 가능하다.⁷⁶⁾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자를 접하게 되면 형성자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한자의 음을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부는 사물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水'를 형부로 취한 형성자는 물과 관계가 있고, '木'을 형부로 취한 형성자는 나무와 관계가 있다. 부수자는 곧 형성자의 형부 구실을 하는데, 어떤 부수자는 형성자의 성부 구실을 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門'의 경우, '閑 · 間 · 開 · 閉' 등의 한자들에 대해서는 형부, 즉 부수로 쓰였지만 '問(물을 문 : 口부 8획), 聞(들을 문 : 耳부 8획)'에 대해서는 성부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은 부수와 성부를 아울러 학습해야한다는 근거라고도 할 수 있다.⁷⁷⁾

날개로 산만하게 흩어져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글자를 일정한 기준으로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법칙을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자의 성부가 같은 한자를 유형별로 익히면 하나의 독음을 기억하면서 부수자의 부가 여하에 따라 여러 개의 한자를 기억할 수 있고 한자의 시각적 포착력 또한 높아져 변별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자체의 복잡성에서 기인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예컨대, 靑, 淸, 晴, 請, 情의 공통적인 부분은 靑으로 대체로, '청', '정'의 독음을 갖는다. 비슷한 유형의 한자를 제시하여 독음 부분과 뜻 부분으로 양분하여 변별력을 키우고, 뜻 부분을

76) 이병찬(2003), 「한자교육상의 형성자문제」, 『한문학논집』 21권, 근역한문학회

77) 『調整白書』 40쪽에 "...이들테면 門部の 글자인 闕閣閉間閑關闕聞 등이 모두 약자로 표기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闕閣閉間閑關闕聞'은 모두 門部이지만, '閑'은 心部, '聞'은 人部, '聞'은 耳部, '問'은 口部이다. '門'이 '闕閣閉間閑關闕聞'에 대해서는 '部首', '閑'은 '聞'에 대해서는 '聲符'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성부 중심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實例라고 할 수 있다.

이루고 있는 '彳,扌,口' 등의 부수자 이해력 제고 지도를 통해서 뜻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⁷⁸⁾

성부는 語根구실을 하며, 어근이 같은 글자는 의미도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형성자의 성부는 表聲과 表意의 이중적 기능을 담당한다.⁷⁹⁾ 先秦 시기부터 이미 자각되고 있었다는 語音과 의미의 상관성은 '右文說'을 통하여 명확히 드러난다.

우문설은 王聖美이 字學을 연구하고, 그 뜻을 연역하였다. 옛날의 자서는 모두 좌문(좌문 : 왼쪽을 편방)을 따랐다. 모든 글자는 그 종류가 좌문에 나타나고, 그 의미는 우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나무의 종류는 그 글자의 좌문이 모두 '木'을 따른다. 이른바 우문설이란, 예를 들어 '淺(전)'은 '작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물이 작아 얕은 것을 '淺(천)'이라 하고, 쇠가 작은 것은 '錢(전)'이라 하고, 신체가 훼손되어 작아진 것을 '殘(잔)'이라 하고, 재화가 가치가 적은 것을 '賤(전)'이라 하니, 이런 것들은 모두 '淺(전)'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⁸⁰⁾

이 기록에 의하면, 형성자의 성부는 그 글자의 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의미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의성어에 해당하는 한자들은 '聲不載意'라 하여, 성부가 뜻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글자의 발음만 나타내는 것도 있다.⁸¹⁾ 성부도 역시 한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음·의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성부가 뜻을 가진 경우이건 발음만 나타내는 경우이건 간에, 성부의 자형별로 부속 한자들을 한데 모아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78) 원재필(2010), 「한자의 부수와 성부를 활용한 한자이해력 신장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p.2

79) 林尹(1994), 『중국문자학개설』, 서울 : 형성출판사, pp.177~180

80) 이영주(2002), 『한자자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p.128~129

81) 강혜근(1996), 『중국 문자 분류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69~171

교육현장에서 실령 형성자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자의 聲符에 대한 어떤 법칙성을 인식하게 된다. 다만 문제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聲符를 가진 형성자의 분류와 변음현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물론, 형성자의 변음 양상이 복잡해 학생에게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만, 어느 정도 변음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변음 때문에 한자교육이 음보다 자형에 치중하였지만 사실 형성자의 변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자형을 통해 음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더욱 효율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한자교육에 적극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聲符를 기억하여 苦와 若같은 모양이 유사한 자의 경우도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한자를 접할 때 학생들이 단순한 형태를 인식하는 것보다 聲符를 찾아 한자를 기억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한자의 음을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한자학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82) 그래서 형성자의 음가 변화 양상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다.

'ㄱ'의 경우 가장 흔한 변화는 '可, 河, 何, 歌'와 같이 'ㄱ'과 'ㅎ' 즉 조음위치 후반부에 속하는 두 성모의 교체 현상이다. 83)

'ㄴ'의 경우는 변화의 예가 적지만 '若·諾'과 같이 'ㄴ'이 탈락하여 모음만 남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ㄷ'의 경우 '讀·續'과 같이 폐쇄음 'ㄷ'과 마찰음인 'ㅅ' 교체 현상이 잦은데 두 성모는 같은 조음위치에서 발음되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이 '燈·登·證'과 같이 'ㄷ'이 'ㅈ'으로의 교체로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82) 강혜근(1996), 『중국 문자 분류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30

83) 이 현상의 국어학적 의미는 보다 복잡할 수 있으나 현행 한국 형성자의 한자음 실상으로 보면 비교적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ㄹ'의 경우 '林·禁'과 같이 'ㄱ'으로의 치환 현상이 주목되는데 'ㄹ'과 'ㄱ'은 조음위치도 떨어져 있으며 조음 방법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ㄱ-ㄹ-ㅇ'의 조합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치경음이 탈락하고 'ㄱ'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ㄹ'의 경우는 다른 자음과 달리 두드러진 양상이 없다. '武·賦'와 같이 'ㄹ·ㅁ'의 치환은 조음위치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변환이다. 하지만 'ㄹ'과 'ㅎ'의 치환은 중국음으로 유추해도 설명하기 어렵다.

'ㅁ'의 경우는 '返·反·飯·板·版'과 같이 'ㄹ'으로의 전환이 많다.

'ㅂ'의 경우 '陽·揚·場·暢·傷'과 같이 치경 마찰음 'ㅂ'이 'ㅈ', 혹은 'ㅊ'과 인접한 조음위치로 교체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고,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愈·輸'와 같이 'ㅂ'의 탈락 현상이다.

'ㅇ'의 경우는 음가가 없으므로 주로 운모의 관점에서는 성모의 탈락이나 성모의 기준에서는 치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성모가 이런 현상과 연관이 있다. 조음방법이나 조음위치에 상관성이 없는 변화의 경우는 대부분 이런 탈락과 치환을 통하여 다른 성모로 변한 것이다.

'ㅈ'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ㅊ' 혹은 인접한 'ㅂ'과의 교체현상이 빈번하다. 구개음화로 인한 'ㄷ'의 치환도 나타난다. 84)

'ㅊ'의 경우도 전술한 바와 같이 '竹·築·篤' 처럼 'ㅂ' 혹은 'ㅈ'의 치환 현상과 아울러 구개음화와 연관하여 'ㄷ'과 치환도 존재한다.

'ㅋ'의 경우 한국의 한자음은 깨음에 해당하는 한자 외에는 중국의 'ㅋ' 음을 모두 'ㄱ' 혹은 'ㅎ'으로 수용하였으며 여기서 보이는 유일한 변음 '決·缺·快'도 'ㄱ'과의 변환이다.

'ㅌ'의 경우 '深·探'과 같이 'ㅂ'과의 변환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84) 예를 들면 '單·彈·禪·戰' 와 같은 경우이다.

'표'의 경우는 'ㅍ'의 변화에서 설명한 예외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 없다.

'ㅎ'의 경우 'ㄱ'과의 상관성은 전술하였고, 그 다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曜・燒'와 같이 'ㅅ'과의 변환이다. 85)

이와 같이 현행 한국의 형성자 한자음을 기준으로 살펴 본 성모의 변화는 대부분 원래 중국 한자음의 변화양상과 상당히 동일하게 조음방법 혹은 조음위치의 유사성으로 인한 변환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6)

물론, 성부를 활용한 한자교육 방법에 있어서 위에서 제시한 바처럼, 초등학생들에게 변음에 대한 자세한 음가 변화 양상까지 가르쳐주라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학생들이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위의 형성자의 음가 변화 양상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상황에 맞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가령, '反・返・板'의 경우, 'ㅍ'의 음이 '표'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 주면 되겠다. 초등학생들에게 특수한 예까지 들어 변음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형성자를 통한 한자의 이해가 한자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는 있다.

다음은 형성자의 성부를 통한 한자 학습지도안이다. .

단원명	4. 형성자를 통한 한자 익히기	차 시	4	교과서	p.33~40
학습목표	1. 한자의 짜임과 결합 방식을 안다.				
	2. 형성자의 성부를 알고, 간단한 변음은 이해한다.				
	3.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다.				

85) 허용(1985), .p.195

86) 이병찬(2006), 「교육용 기초한자 중 형성자의 음가 변화 연구」, 『한문교육연구』 27권, 한국한문교육학회, pp.436~437

단계	지도요소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 전시 학습 확인,	▷ 전시 학습(육서에 대한 이해)	▷ 전시 학습(육서에 형성자가 있음을) 상기	2'	학습 목표 따라 읽기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위의 3가지 제시	▷ 학습 목표 확인		
전개	• 육서의 정의	▷ 육서란 무엇인가? - 한자가 만들어진 제자 원리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를 육서라 한다.	▷ 육서의 정의에 대한 이해, 상형과 지사는 글자의 창조 원리이고, 회의와 형성은 결합원리임을 알고, 형성자는 한자의 뜻과 음을 결합함을 안다.	30'	뜻부분과 음부분을 따로 구분한 한자 카드 준비
	• 형성자가 만들어진 과정	▷ 형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한자의 대부분이 형성자임을 알고, 형성자의 형성원리를 설명한다.	▷ 둘 이상의 한자가 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되, 뜻과 음이 결합했음을 이해하고, 한자의 대부분이 형성자임을 강조		
	• 형성자의 예에 대한 설명	▷ 부수자인 '靑'을 통해 晴, 淸, 請, 情, 精을 설명하면서, 형성자의 성부와 변음에 대해서도 언급해준다. ▷ 필순의 원칙에 의해 쓰기도, 각 한자마다 예시한자어도 함께 지도	▷ '靑'자 하나를 통해 많은 글자를 기억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형성자에는 변음이 있음을 안다. ▷ 필순의 원칙에 의해, '靑'을 먼저 쓴 뒤, 그와 관련된 晴, 淸, 請, 情, 精을 쓴다.		
정리	• 정리 • 형성평가	▷ 정리 ▷ '主'와 '住'와 '注'는	▷ 형성자는 한자의 음과 관련있음을 안다.	8'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주인 주'의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 주'와 '물달 주'를 이해한다.		
--	--	-------------------	---	--	--

앞에서 제시한 바와 연관짓자면, 3가지 방법 가운데 특히 부수와 육서 중에 형성자의 성부를 중심으로 형성의 원리와 출현 빈도 등을 적용하면 꼭 한 가지 방법에 의한 방법보다, 상호 보완의 효과를 더 잘 거둘 수 있다. 학습을 계속함에 따라 억지 해석을 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부수자나 성부자의 공통 속성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3가지 방법을 따로 분화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부수와 육서 중 형성자의 성부를 활용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떤 부수에 속하는 한자를 한두 개만 알더라도, 어떤 성부자가 들어있는 한자를 한두개만 알더라도 흠어져 있는 한자들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익힘으로 어렵듯이 기억된 한자들을 자형별로 정리하여 기억할 수 있으며 문장 속에서 처음 보는 한자의 뜻을 추측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생소할 것이 전혀 없어서 적용하기도 쉽고, 이러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한자 학습에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⁸⁷⁾

87) 이영수(2004),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수 및 성부 활용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 1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398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한자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초등한자교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원과 부수, 육서를 통한 한자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장에서는 연구사 및 연구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자교육에 쓰이는 인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보고하여, 앞으로 인정교과서를 편찬할 때 필자들은 조금 더 심도있게 편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논문을 썼다. 인정교과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인정교과서에 실린 각기 다른 어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인정교과서 54종 중 시중에서 많이 보는 3종류의 인정교과서를 선정하여 각각의 語源을 살펴보고, 語源에 근거하여 실었는지 살펴보았다. <설문해자>와 <갑골문>을 토대로 어원을 비교하고, 어원을 통한 수업지도안을 계획해본다. 현재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한자는 무조건 쓰고, 암기해야만 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한자를 교육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자원, 부수, 육서를 활용한 방법을 초등학교 범위 내의 한자 600자에서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앞으로 한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을 대부분 한자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자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한글 창제 이후 우리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국어생활 가운데 읽고 쓰는 말과 글 속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가 섞여 쓰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국어사전에 나타난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의 비율을 보면 국어사전 어휘의 약 65%가 한자어이다. 이렇게 볼 때, 한자교육은 우리 언어 · 국어 · 문화 ·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다. 우리나라의 한자교육 여건을 보면, 언어생활 중심의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끝난다. 중 · 고등학교에서도 언어생활의 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한문 문장 학습 이전 단계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중 · 고등학교 한문 교육은 초등 한자교육과 성격과 목표가 다르다. 그리고 이때의 한자 학습 방법은 향후 한자 지식과 관련한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평생 계속교육 차원에서 기본적인 한자 학습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교육에 기초다.

한자는 근대 이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에서 통용되는 보편문자다. 지금도 각국마다 언어생활의 기반을 이루면서 문자 사용상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簡化의 원리가 대부분 원 글자의 자형 특성에 근거하고 있고, 일본의 약자도 수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사용 실체에 있어서도 正體字 본위로 배운 학생들이 간화자 사용에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일본의 약자도 원 글자의 형태로부터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다.

앞으로 한자교육은 창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

이다. 이것은 예전처럼, 단순 암기식으로 훈과 음을 외우고, 무조건 쓰기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이 한자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방식의 어원을 알려주고, 어원을 통해 공부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으며, 교사 또한 어원에 근거하여 창의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Ⅲ장에서는 한자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교육과정보다는 어문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까지도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교육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문정책에 따라 정규교육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부터 생긴 '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교과를 한자를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한자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교육과정의 변화로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게 되었는데, 한자교육은 부족하나마 이전의 비공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공식교육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과는 달리 구체적인 교육목표 설정과 방법, 내용체계를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며, 교재 검토 또한 이루어져 할 것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는 600자만을 제시하고, 그 편성 및 운영은 교재 집필자나 출판사에 일임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침자습시간, 재량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방과후학교 시간의 4가지 종류이다. 그런데, 아침자습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에 한자를 지도하는 것은, 특별 활동 또는 방과 후 학교 시간에 한자를 지도하는 것도 그 의미가 다르다. 아침자습시간에 학교 전체가 한자를 지도한다거나, 재량활동시간에 어느 학년이 한자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사교육적인 측면에서 한자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7~2009년 한자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초등학생은 모두 240만명으로, 연 평균 80만명이 한자 시험에 응시한다. 이는 지난 3년간 전체 초등학생 10명중 7명(69%)이 한자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셈이고 매년 4명 중 1명(24%)이 응시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한자교육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서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교육에서의 한자학습지는 웅진 썬크 빅, 재능 교육, 대교 눈높이, 구몬 교육, 장원 한자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동영상 강의나 여러 한자 학습 사이트에 한자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자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공교육에서 아직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하고, 하루 빨리 국가 수준의 한자교육 과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는 초등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시간, 혹은 아침자습 등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한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업에 사용되는 인정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각 인정교과서마다 다른 어원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한자교육은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자를 반드시 전공한 사람이 한자를 교육해야 하는 바람이다.

IV장에서는 한자를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자원을 통한 한자 학습 방법, 부수를 통한 한자 학습 방법, 육서를 통한 한자학습 방법을 통한 한자학습 방법을 각각 살펴보고, 각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한자교육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토의 학습법, 역할 놀이 학습법, 토론 학습법, 비교 학습법, 비교학습법, 구조 분석법, 그

림을 통한 학습법, 노래를 통한 학습법 등 다양한 한자학습 방법을 살펴보았다.

한자의 자원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한자를 쉽게 이해하여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줄 뿐만 아니라, 字體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워준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교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부족하거나 다양한 학설을 선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 지식이 미약하여 자원을 활용한 수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과서 집필자들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학습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자들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부수 중심의 학습법은 부수는 자형상에서 한자의 공통부분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기본적인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부수를 바르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한자학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부수를 알면 동일한 부수의 다른 한자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육서를 통한 학습법은 제자원리를 적용하여 분석적으로 한자를 지도한다면 한자의 이해와 기억에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육서가 모든 한자의 제자원리인 것은 사실이나 한자 하나를 고찰해 보면 회의와 형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전주와 가차자의 구별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한자들을 학생들에게 육서에 의해 가르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육서는 반드시 제자 원리가 뚜렷한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구별이 정확한 것만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육서 중에 형성자의 성부를 통한 학습 방법은 한자를 접할 때 학생들이 단순한 형태를 인식하는 것보다 聲符를 찾아 한자를 기억하는 방

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한자의 음을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한자학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특수한 예까지 들어 변음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육서 중 형성자의 성부를 통한 한자의 이해가 한자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는 있다. 특히, 부수와 육서 중 성부를 활용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어떤 부수에 속하는 한자를 한두 개만 알더라도, 어떤 성부자가 들어있는 한자를 한 두개만 알더라도 흠어져 있는 한자들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익힘으로 어렵듯이 기억된 한자들을 자형별로 정리하여 기억할 수 있으며 문장 속에서 처음 보는 한자의 뜻을 추측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자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실태와 효과적인 한자교육방법을 살펴보았다. 한자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인정교과서의 내용들은 표준화된 내용으로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편찬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검정교과서가 하루 빨리 출간되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급되어서 올바른 한자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출간되고 있는 초등학생용 한자교과서는 대부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교재들이 많은데, 급수 시험 뿐 아니라, 언어 생활에 유용하면서 도구교과적인 성격아래, 타교과서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 차원의 검정교과서가 보급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나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효율성 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변화된 현실에서 좀 더 발전된 초등학교 한자교육방법이 실현되기를 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초등학교 한자교육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교수-학습지도안만을 기술하였을 뿐, 각각의 교육방법에 대한 실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1. 著書類

- 김미화(2009),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한자 비타민 2000』, 중앙경제생활사
- 김용걸(1998), 『자원자해으로 익히는 한자, 삼지원』
- 김정휘·주영숙 공저(1982), 『교육심리학탐구』, 형성출판사
- 이영주(2002), 『한자자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충구, 『한자부수해설』, 전통문화연구회, 전개서
- 임명자 외(2006), 『놀이로 배우는 쑥쑥한자』, 대한교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인정도
서
- 林尹(1994), 『중국문자학개설』, 형성출판사
- 최영애(1995), 『한자학강의』, 통나무

2. 論文類

- 강민석(2008), 「초등학교 한자 교과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전공
- 김어진(2010), 「초등학교 한문교육 현황과 모형 모색」,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영환(2002), 「초등학교 한자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
- 김은정(2003),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영(2007), 「신문 방송을 활용한 한자·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한자한문교
육』 제 18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종운(2005), 「창의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자 지도 방안 연구」, 『한국어문교육』

제 14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김창호(2005), 「한자교육에 있어서 자원의 문제」, 『한자한문교육』 1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창호(2005), 「한자교육에 있어서의 자원의 문제 : 김인정 한자 교과서의 자원 설명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 15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김창호(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성격과 지향」,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남수극(2005), 「활동중심 초등학교 한자 지도방안」, 『한자한문교육』 제 14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류준경(2008), 「한문교육의 이념과 대학원의 역할」, 『한문교육연구』 제30호

박정규(2009),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제언」, 『사학과 언어학』

송병렬(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 방향 정립과 현행 방안」,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송영일(2006), 「자원 한자 교수 · 학습 연구 : '손' 관련 한자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 16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원재필(2010), 「한자의 부수와 성부를 활용한 한자이해력 신장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경숙(2004), 「형성자의 성부를 이용한 한자교육에서의 응용」, 『한문학보』 제 10집, 우리한문학회

이병찬(2003), 「한자교육상의 형성자문제」, 『한문학논집』 21권, 근역한문학회

이병찬(2006), 「교육용 기초한자 중 형성자의 음가 변화 연구」, 『한문교육연구』 27권, 한국한문교육학회

이복규(1999), 「옛날이야기와 수수께끼를 통한 한자, 한문 학습」, 『한자한문교육』 제 5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이영수(2004), 「한자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수 및 성부 활용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 12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이은주(2006), 「자원을 활용한 한자교육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충구(2006), 「설문해자에 나타난 한자자원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 1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정연실 · 장은영(2009),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부수자 중심 한자교육 :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외국어과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표를 대상으로」, 『중국학연구』 제 47집, 중국학연구회
- 지재환(2003), 「초등 한자교재 분석을 통한 초등한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문교육전공
- 진철용(2009), 「초등학교 한자 교재의 구성과 활용 현황」, 『한문교육연구』 32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진철용(2009),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자한문교육』 2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진태하(2003), 「형성자 연구」, 『새국어교육 통권6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주열(1994), 「한자교육 방법에 관한 고찰 - 외국인에 대한 한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말 교육』 5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은수(2006), 「자원을 활용한 한자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 초등학교 한자 교재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 17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한은수(2007), 「구성주의 자원 학습법을 활용한 한자 교수-학습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한은수(2009), 「창의적 체험활동과 초등학교 한자교육 운영 방안」,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한은수(2009), 「현행 초등학교 한자 인정교과서 내용 분석」, 『한자한문교육』 제 23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허 철(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위한 기초어휘·기초한자 선정의 방법 검토」,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of Primary School and the Effective Education Method of Chinese Character

Kim Mi-young

Dept. of Chinese Classic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hinese character education at primary school came to meet new turning point by the revision of curriculum. Chinese character education came to secure position as official education by getting out of former unofficial education. Thus, it is point of time when examination for authorized text book is necessary differently from Chinese character education at primary school which has been enforced up to now.

Textbooks authorized by superintendents of educational affairs in city and province which were manufactured, so that primary school students may study are 54 kinds or more, and authorized text books of primary school which have been published after 2000 occupy 19.8% of whole authorized text books as 49 kinds and 212 books. To the extent that

authorized text books of Chinese character of primary school are published, authorized text books of Chinese character of primary school are being spread all over the country. To that extent, school spot needs authorized text books, and it proves that they are doing Chinese character education by utilizing authorized text books really.

From this viewpoint,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pointed out that etymology of authorized text books is being recorded differently which is the point at issue of authorized text books of primary school and classified and analyzed theories for etymology out of contents recorded in authorized text books. It is desirable to handle only etymology recognized in academic circle up to now in textbooks. After choosing 10 letters or so. out of Chinese characters that primary school students should learn, this researcher compared etymology to be based on it on the basis of <clearly written character of question> and <Kabgol character> and planned the teaching plan of lessons through etymology.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diagnosed the actuality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of primary school, pointed out the points at issues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of primary school, and presented right direction that Chinese character education of primary school should advance in the future concretely. There is recognition that Chinese character is subject to have to write and memorize unconditionally, though we recognize the necessity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For changing this recognition, this researcher introduced diverse methods for various Chinese characters, presented method to utilize out of methods to be used most widely, and tried to make teaching plan of teaching-study.

Through this, this researcher illuminated the point that Chinese character education should aim in the future again.

-부록

<서울특별시 한자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없지만 지역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중에 서울특별시 한자교육과정을 살펴보겠다.

1. 성격

초등학교 한문 교육은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가량을 바탕으로 한자·한자어·한자어구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게 하며, 한자어로 이루어진 국어의 기본 어휘의 이해력을 높여서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한자어의 학습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교양을 기르게 한다. 한문교육은 학교 재량 시간을 활용한 선택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자·한자어·한자어구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어휘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목표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중 600자 가량을 바탕으로 한자·한자어·한자어구를 익혀 언어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하며,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

- ① 한자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 ② 한자어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게 한다.
- ③ 간단하고 평이한 한자어구를 익히고, 그 뜻을 해독할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 ④ 한자어 및 한자어구 학습을 통하여 예절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며, 선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

<214자 부수>

획수	부수	짜임	자원	해당 한자
1획	一(한 일)	지사	가로로 한 획을 그어 하나	二, 上
	丨(뚝을 곧)	지사	곧 바로 선 것으로써 위아래의 꿰뚫은 일	中
	丶(불뚝 주)	상형	심지불의 아래가 넓으며 위가 뾰족한 모양	主
	丿(삐침 별)	상형	왼쪽으로 끝은 모양	爻
	乙(새 을)	상형	봄에 초목이 구부러져 나옴	九
	丨(갈고리 꺾)	상형	갈고리가 아래로부터 위로 거꾸로 됨	事
2획	二(두 이)	지사	一과 一이 서로 짝하여 二가 됨	五
	ㄷ(머리 두)	미상	宀의 偏旁에서 취했는데, 뜻은 결여됨.	亡
	人(사람 인)	상형	사람이 측면에 서서 몸을 굽힘	來, 休
	儿(어진사람 인)	상형	왼쪽은 사람의 팔, 오른쪽은 사람의 다리	兄, 光
	入(들 입)	상형	풀과 나무의 뿌리가 땅에 들어가는 모양	內, 全
	八(여덟 팔)	지사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을 향해 서로 등지는 모양	公, 共
	冂(멀 경)	상형	읍의 바깥을 郊라 하고, 郊의 바깥을 野라 하고, 野의 바깥을 林이라 하고, 林의 바깥을 冂이라 함.	再
	冫(덮을 떡)	상형	천으로 물건을 덮어 위가 편편하고 두 가지 장자리가 아래로 내려진 모양	冥
	冫(얼음 빙)	상형	물이 영겨 얼 때에 무늬 결의 모양	冬, 冷
	几(안석 꺾)	상형	위는 편편하게 앉을 수 있는 표면.	凡
	凵(입벌릴 감)	상형	입을 벌리고 아랫입술이 나온 모양	出, 凶
	刀(칼 도)	상형	위는 칼자루, 왼쪽은 칼날, 오른쪽은 칼등, 아래는 칼끝의 모양	分, 利
	力(힘 력)	상형	사람의 힘줄의 모양을 본떴다.	功, 勞
	勹(쌀 포)	상형	사람이 몸을 구부린 모양	包
	匕(비수 비)	상형	서로 함께 친밀히 차례지음. 밥 숟가락	北, 化
	匚(상자 방)	상형	물건을 받아들이는 그릇	匪
	匚(감출 혜)	회의	덮어가림. 감추고 덮어서 가림.	區
	十(열 십)	지사	남북과 동서를 나타냄. 온전히 갖추어 결함이 없음	針
	卜(점 복)	상형	거북의 등껍질을 갈라서 불에 굽는 모습	占
	冫(병부 절)	상형	뺨 마디의 모양을 본 뜬	却
	厂(굴바위 업)	상형	산 돌의 언덕 바위의 동굴의 모양	原
	厶(사사로우 사)	상형	고리같이 굽은 것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그 마음에 굽어 바르지 않음을 품음	去
	又(또 우)	상형	손목과 손가락을 측면에서 본 모양	友, 反

획수	부수	짜임	자원	해당 한자
3획	口(입 구)	상형	위,아래 입술과 양쪽 가를 위로 넓힌 모양	右, 各
	凵(에울 위)	상형	회전하며 돌려 합한 모양	圖, 國
	土(흙 토)	상형	땅이 모든 물건을 토해내는 것	堂, 地
	士(선비 사)	상형	일하는 이,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선비	壯, 壬
	夂(뒤져올 치)	상형	사람의 두 다리가 뒤에서 이르름	冬
	辵(천천히 걸을 쇠)	상형	사람이 천천히 걸어감	夏
	夕(저녁 석)	상형	月 안의 한 획을 생략해 '어둡다'의 뜻	多, 外
	大(큰 대)	상형	사람이 정면으로 서서 두 팔을 들고, 두 다리를 벌린 모양	夫, 太
	女(계집 녀)	상형	두 손으로 서로 가리고 무릎을 여미고 고요히 앉았음	始, 姓
	子(아들 자)	상형	어린이가 포대기 안에 있는 모양	孫, 孝
	宀(집 면)	상형	담장이 있고, 위에 덮개가 있는 집의 모양	客, 家
	寸(마디 촌)	지사	又는 손이고, 丿은 손에서 팔쪽으로 물러난 10푼되는 곳 寸이다	對
	小(작을 소)	지사	사물의 작음이다. 八은 나뉘이고, 丨은 경계가 되어 가운데가 둘로 됨	少
	尢(질름발이 왕)	상형	人을 따랐고, 오른쪽 다리가 굽은 사람	尢
	尸(주검 시)	상형	사람이 누운 모양을 본뜬	展, 屋
	乚(씩날 철)	상형	초목이 처음 생겨면 작기에, 썩나다. 왼손	屯
	山(메 산)	상형	세 개의 산봉우리 모습	島
	川, 巛(내 천)	상형	넷물이 길게 흘러가는 모양	州
	工(장인 공)	상형	굽자의 모양을 본뜬 글자	巨, 巫
	己(몸 기)	상형	세 횡선과 두 직선이 실을 갈라놓은 모습	巷
	巾(수건 건)	상형	수건으로 사물을 덮고 두 끝이 아래로 드리운 모양	席, 市
	干(방패 간)	상형	서로 침해하고 서로 저축하는 뜻이다.	年, 平
	㇇(작을 요)	상형	아이가 처음 생기는 모양	幼
	广(집 업)	상형	언덕을 인해 집을 만드는 것이다.	店, 廣
	辵(길게걸을 인)	상형	연달은 걸음이 끊어지지 않음	建, 延
	廾(바칠 공)	회의	좌우 두 손을 서로 공손히 모으는 일	弄
	弋(주살 익)	상형	말뚝을 본떴는데, 머리는 걸린 물건의 갈래를 본떴고, 오른쪽 아래는 기둥	式
	弓(활 궁)	상형	활이 풀렸을 때의 모양	弟, 弱
	㇇(돼지머리 계)	상형	돼지머리가 위는 뾰족하며 얼굴 부분이 큰 모양을 본뜬	彗
	彡(터럭 삼)	상형	붓으로 꾸며 그은 무늬	形, 彩
	彳(자축거릴 척)	상형	行은 사람이 걸어 나아감, 彳은 작은 걸음	待, 後

획수	부수	짜임	자원	해당 한자
4획	心(마음 심)	상형	심장의 모양	情, 愛
	戈(창 과)	사형	창의 모양	成, 戰
	戶(지계 호)	상형	밀어서 여는 문의 반쪽	所
	手(손 수)	상형	다섯 손가락을 다 편 손의 모습	才, 技
	支(지탱할 지)	회의	손으로 대나무를 쥐고 있는 모습	支
	攴(칠 북)	회의	손으로 나무 가지를 들고 때리는 모습	教, 放
	文(글월 문)	상형	사람 가슴에 심장의 무늬가 새겨진 모습	齊
	斗(말 두)	상형	술을 푸는 자루가 긴 연장	料
	斤(도끼 근)	상형	도끼의 모습	新
	方(모 방)	상형	사람이 어깨 위에 무엇인가 멘 모습	族, 旅
	无(없을 무)	상형	사람이 꿰어 앉아서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뒤로 돌린 모습	既
	日(날 일)	상형	해의 모양. 흑점은 가로획으로 변함	明, 時
	曰(가로 왈)	지사	입에서 기운이 나오는 모습	會, 書
	月(달 월)	상형	초승달의 모양. 가운데 검은 점	望, 朝
	木(나무 목)	상형	잎이 떨어진 나무인데, 뿌리가 있는 모습	植, 根
	欠(하품 흠)	상형	사람이 입술을 내밀고 있는 모습	歌
	止(그칠 지)	상형	발(복사뼈 이하)의 모습	正, 歲
	歺(뼈양상할 알)	상형	죽은 사람의 뼈가 조각나 있는 모양	死
	戔(창 수)	회의	손에 작은 몽둥이의 모습	殺
	毋(말 무)	상형	毋에 한 획을 그어 하지 말라의 뜻	母, 每
	比(견줄 비)	회의	두 사람이 견주며 서 있는 모습	毖
	毛(털 모)	상형	새의 깃털을 본뜬 글자	毫
	氏(성 씨)	상형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모습	民
	气(기운 기)	상형	위를 향해 기운을 내뿜는 모습	氣
	水(물 수)	상형	물이 비스듬히 굴곡져서 흐르는 모습	江, 湖
	火(불 화)	상형	불꽃이 위로 솟는 모양	炭, 無
	爪(손톱 조)	상형	손가락을 펴서 손톱을 나타낸 글자	爭
	父(아버 부)	회의	한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	爺
	爻(점괘 효)	상형	나무를 반으로 쪼갠 때의 왼쪽 조각 모양을 본뜬 글자	爽
	尪(나무조각 장)	상형	눅혀 놓은 평상을 수직으로 세운 모습	將
	片(조각 편)	지사	'宀'과 '片'은 원래 한 글라인데 옛날에는 좌우를 바꾸어 쓰기도 함	
	牙(어금니 아)	상형	어금니가 서로 맞물려 있는 모습	雅
	牛(소 우)	상형	뿔이 나 있는 소의 모습	物, 特
	犬(개 견)	상형	뒷발로 서 있는 개의 모습	獨, 狂

획수	부수	짜임	자원	해당 한자
5획	玉(구슬 옥)	상형	한 개의 밧줄로 세 개의 구슬을 켜	理, 球
	玄(검을 현)	상형	玄에서 나온 글자다. 작은 것이므로 확 실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묘하다"	玆
	瓜(오이 과)	상형	줄기 아래로 열매가 매달린 모습	貯
	瓦(기와 와)	상형	기와를 사용하여 방을 덮는 것	甕
	甘(달 감)	지사	물건 담은 그릇 가운데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곳에는 짧은 가로 획을 그음	甚
	生(날 생)	상형	무의 모습으로 땅 위로 무가 자란 것	産
	用(쓸 용)	미상	등그랗고 가운데가 비어있던 모습이 선 들이 연결된 모습이 되었다 현재 모습	甫
	田(밭 전)	상형	네모난 덩어리 속에 밭 가운데 작은 길	界, 畝
	疋(밭 소)	상형	밭의 모습을 본뜬 글자	疎, 疏
	疒(병들 녀)	회의	누워서 자는 모습을 세로로 세워 놓음	病
	𠂔(걸을 발)	상형	두 발을 올리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함	登, 發
	白(흰 백)	상형	갑골문에서 사람의 머리모양을 나타냄	百, 的
	皮(가죽 피)	회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거남 벗김	虋
	皿(그릇 명)	상형	물건을 담은 기구	盛
	目(눈 목)	상형	눈동자의 모습을 세로로 세운 것	相, 直
	矛(창 모)	상형	옛날 병기를 본떠서 만든 글자	矜
	矢(화살 시)	상형	화살의 모양을 본뜬 글자	短, 知
	石(돌 석)	상형	바위 아래 한 덩이의 돌이 놓여 있음	破
	示(보일 시)	상형	하늘에서 신이 땅을 내려다 봄	神, 社
	宀(짐승발자국 유)	상형	짐승의 발자국, 고대에는 뱀이나 벌레의 모습으로 그림	禽
禾(벼 화)	상형	벼에 이삭이 맺혀 있는 모습	秋, 科	
穴(구멍 혈)	상형	두 개의 동굴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	窓, 空	
立(설 립)	회의	한 사람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	童, 競	
6획	竹(대 죽)	상형	대나무 잎의 모습	等, 簡
	米(쌀 미)	상형	위 아래의 선들은 낱알의 모습인데 후 에 가운데를 이어서 현재의 모습이 됨	糧
	糸(실 먹)	상형	한가닥 실의 모습	結, 終
	缶(장군 부)	상형	배가 볼록한 원통형의 그릇	缺, 缸
	网, 𦉳(그물 망)	상형	그물의 모습	罪, 罰
	羊(양 양)	상형	뿔이 난 양의 머리 모습	美, 群
	羽(깃 우)	상형	새의 깃털의 모습	習, 翼
	老(늙을 로)	상형	허리 굽은 사람이 지팡이 잡고 있음	老, 者
	而(말이을 이)	상형	수염이 난 모습	耐
耒(쟁기 퇴)	상형	손으로 쟁기를 잡고 있는 모습	耕	

획수	부수	짜임	자원	해당 한자
6획	耳(귀의 모습)	상형	귀의 모습	聞, 聽
	聿(붓 율)	상형	손으로 붓을 쥐고 있는 모습	肅
	肉(고기 육)	상형	썰어 놓은 고기의 모습	育, 能
	臣(신하 신)	상형	사람이 머리를 숙이면 '굴복'의 의미	臨
	自(스스로 자)	상형	코의 모습을 본뜬 글자	臭
	至(이를 지)	회의	공중에 날린 화살이 땅에 떨어져 닿음	致
	臼(절구 구)	상형	절구의 모습, 가운데는 칼로 파낸 흔적	舊
	舌(혀 설)	상형	입에 무엇인가가 나온 모습	舍
	舛(어그러진 천)	회의	두 발의 모습으로 본래 위반하다의 의미	舞
	舟(배 주)	상형	나무 등을 엮어서 만든 배의 모습	船
	良(괘이름 간)	회의	밥그릇을 본뜬 모습	良
	色(빛 색)	회의	위는 서 있는 사람, 아래는 꿇어 앉음	艷
	艸(풀 초)	회의	풀이 난 모습	花, 草
	虍(범 호)	상형	범의 머리, 범의 몸 위에 있는 무늬	虎, 號
	虫(벌레 웅)	상형	몸이 긴 벌레, 뱀	蛇
	血(피 혈)	회의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물건으로 피	衆
	行(다닐 행)	상형	서로 교차되어 트인 사거리	術, 街
	衣(옷 의)	상형	몸 윗부분을 무엇인가 덮고 있는 모양	表, 裏
	冫(덮을 아)	지사	'冫'자의 위와 아래를 덮고 있는 모습	要
	7획	見(볼 견)	회의	사람 머리에 눈을 크게 그려서 본다
角(뿔 각)		상형	짐승의 뿔을 본뜬 글자	觥
言(말씀 언)		상형	입에서 떨어져나온 기운 같은 것	話, 語
谷(골 곡)		회의	샘에서 나와 川을 통해 가니 골짜기	睿
豆(콩 두)		상형	받침이 높고 원통형의 그릇인 제기	豐
豕(돼지 시)		상형	큰 귀와 큰 배를 강조해서 돼지	豚
豸(발없는 벌레 치)		상형	머리 모양을 특별히 둥글게 강조해서 고양이 의 의미를 나타낸 글자	貌
貝(조개 패)		상형	껍질을 벌려 놓은 조개의 모습	財, 質
赤(붉을 적)		회의	사람이 불 위에서 타고 있는 모습	赫, 赦
走(달릴 주)		회의	사람이 팔을 벌리고 달리고 있는 모습	赴
足(발 족)		상형	무릎 아래쪽의 모양을 본뜬 글자	路
身(몸 신)		상형	임신한 여인의 모습에서 나온 글자	躬
車(수레 거·차)		상형	축에 끼워져 있는 수레바퀴의 모습	軍, 輕
辛(매울 신)		상형	죄인에 얼굴에 문신을 새겨 넣던 칼	辣
辰(별 신, 용 진)		상형	대합조개의 껍질을 본뜬 글자	農
辵(갈 착)		회의	"行"의 우측이 들어 있고 아래는 발아래	遠, 速
邑(고을 읍)		회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음	部, 郡
采(분별할 변)		상형	짐승이 발톱이 나뉘어져 있는 모습	釋
里(마을 리)		회의	"田"과 "土"로 글자를 나뉘어서 사람이 살 고 있는 곳	重, 量

획수	부수	짜임	자원	해당 한자
8획	金(쇠 금)	상형	흙 속에 묻혀있는 금조각	鐵, 銀
	長(긴 장)	상형	사람의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림	𡵓
	門(문 문)	상형	양쪽으로 나와 있는 문	間, 閉
	阜(언덕 부)	상형	산비탈을 본뜬 글자	陸, 防
	隶(미칠 이)	회의	손으로 비를 들고 있는 모습	隸
	隹(새 추)	상형	꼬지가 짧은 새의 모습	雄, 集
	雨(비 우)	상형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雲, 雪
	靑(푸를 청)	회의	生과 丹의 합자	靜
9획	非(아닐 비)	상형	'北'에서 나온 글자, '아니다'의 뜻	靡
	面(얼굴 면)	상형	겉은 뺨을 속은 눈을 본떠서 만듦	砲
	革(가죽 혁)	회의	두 손으로 가죽을 잡고 있는 모습	靴
	韋(다름가죽 위)	회의	가운데의 한 범위를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	韓
	韭(부추 구)	상형	땅 위로 길게 자라난 부추의 모습	鐵
	音(소리 음)	지사	'言'자 아래에 '口'에 가로획을 그음	韻
	頁(머리 혈)	상형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 있는 모습	頭, 額
	風(바람 풍)	형성	'鳳'에서 나옴	颶
	飛(날 비)	상형	새가 고개를 돌리고 날아오름	飜
	食(밥 식)	상형	艮(밥그릇을 본뜬)위에 담겨진 음식 을 사람이 보고 있는 모습	飲, 養
首(머리 수)	상형	눈과 눈썹을 그려 놓아서 머리	顏	
香(향기 향)	회의	위는 '黍' 혹은 '禾'를 아래는 '甘'을 나타낸다.	馥	
10획	馬(말 마)	상형	갈기가 길게 드리워진 말의 모습	驥, 驛
	骨(뼈 골)	회의	위는 뼈가 흩어져 있는 모습이고 아 래는 '肉'을 붙여서 만든 글자	體, 骸
	高(높을 고)	상형	흙으로 쌓아 놓은 성곽 위에 다시 앉을 수 있는 물건을 놓음	高
	髟(머리늘어질 표)	회의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	髮
	鬥(싸울 투)	상형	두 사람이 무기를 잡고 마주봄	鬪
	鬻(울창주 창)	상형	그릇 안에 담긴 물건을 묘사함.'降神' '용으로 쓰기 위한 향풀로 만든 술	鬱
	鬻(오지병 격)	상형	술의 한 종류로, 세 발 술	鬻
	鬼(귀신 귀)	상형	얼굴이 큰 사람으로 귀신을 나타냄	魂

획수	부수	짜임	자원	해당 한자
11획	魚(물고기 어)	상형	물고기의 모습을 본뜬 글자	鮮
	鳥(새 조)	상형	새의 모양을 본뜬 글자	鶴
	鹵(소금밭 로)	상형	'西'에서 취한 글자, 서쪽 소금밭	鹽
	鹿(사슴 록)	상형	빨난 사슴의 모습	麟
	麥(보리 맥)	회의	'來'와 한 글자였다. 큰 보리를 麩	麩, 麵
麻(삼 마)	회의	삼대의 양쪽으로 삼실이 보이는 모습	磨	
12획	黃(누를 황)	상형	배가 볼록하게 나온 사람 모습으로, 복부가 팽배하고 누렇게 뜨는 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하는데서 '누렇다'	鞋
	黍(기장 서)	상형	날알이 많이 달린 곡식의 모습	黎
	黑(검을 흑)	회의	머리가 큰 사람의 모습	點
	黻(바느질 할 치)	상형	위 아래 포대를 실로 엮고 있는 모습	黻
13획	黽(맹꽁이 맹)	상형	엎드려 있는 맹꽁이의 모습	鼈
	鼎(술 정)	상형	쇠로 만든 발이 셋, 귀가 둘 달린 손으로 음식을 익히는데 쓰고, 죄인을 삶아 죽이는데에도 썼다.	鼎
	鼓(북 고)	회의	왼쪽은 북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북채의 모습으로 북을 친다는 뜻	葵
	鼠(쥐 서)	상형	고문자에는 없는 글자로 꼬리가 달린 짐승에서 나온 자이며, 윗부분을 이빨	鼯
14획	鼻(코 비)	회의 형성	윗 부분은 '自'는 코를 나타내고, 아랫부분의 '畀'는 음을 나타냄	鼻
	齋(가지런 할 제)	상형	곡식의 이삭이 위로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모습	齋
15획	齒(이 치)	상형	'止'는 발음이고 아랫부분을 벌린 입 사이로 드러나는 이빨의 모습	齡
16획	龍(용 룡)	상형	꼬리가 길고 발이 달린 짐승	龍
	龜(거북 귀)	상형	거북이의 모습으로 등껍질을 강조	龜
17획	龠(피리 약)	상형	여러 개의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악기	龠

